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의 아픈 마음과 슬픔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와 새 삶의 소망을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지저스타임즈 대표 및 직원 일동

박용숙목사, 농아환자돕기 일일찻집 열어 수익금전달



주성창각
인교회(담임
목사 박용숙)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에서
지난 5월 1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청각인의 날 기념
및 나눔 축제 행복의 일일 찻집을
열었다.

농아환자들이 기금마련을 위
해 행복의 일일 찻집 오픈에 앞
서 담임 박용숙(우측소)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창성교
회 김희수 목사가 기도를 하고
수원할렐루야교회 수화 중창단
의 찬양이 있었으며, 한기홍 중
경경찰 영선진 목사(중형교회
원로)가 설교했다.

이여 지저스타임즈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의 축사를 하고, 박용숙 목사의 인사 및 광고가 있는 후 비전봉사회교회 김병택 목사가 축도하고 방주요회 유성희 목사의 오찬기도가 있었다.

2부 순으로 마술의 달인 김청의 마술쇼가 진행되었으며, 무료봉사로 미용실 제공, 맛사지 체험, 미술과 어서 지도, 수화 문맹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필리핀선교 농아난민돕기 기금 및 난치병, 희귀병, 농아환자 돕기 위한 행복의 일인 찾집을 열어 위임한 목사, 소진우 목사, 김희수 목사, 이정훈 목사, 임혜숙 목사와 성도들의 정성어린 기금마



련으로 200만원과 아이패드를 선 농아 돕기 및 난치병·희귀병 농 하는 등 화기에애한 가운데 마쳤 물로 필리핀 다바오 지역 선교와 아환자 돕는데 수익금전액을 전달 다.

기독교시민연대 5개 단체 성명서 발표

“구원과 유병언씨는 기독교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기독교시민연대, 기독교사회질서연합, 참소리연합, 기독교부패척결연대, 한국목회자개혁중앙협의회가 5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원파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구원파는 기독교집체가 아니라 유병언 교주의 사교집단이므로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구원과 배후세력 철저히 조사해 밝히려
기독교시민연대 등 기자회견 열고 촉구

성명에서 ▲구원과는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즉각 해체할 것 ▲정부는 구원과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밝힐 것 ▲사법당국은 유병인 씨를 철저히 수사할 것 ▲유병인 씨는 세월호 피해 관련 전액 보상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사이비 이단 집단에 국민 여러분과 1200만 성도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뒤, 사이비 이단의 특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인하며 교주 자신이 구원자임을 주장하고 ▲예수의 성령 임재를 부인하며 ▲폭력, 공갈, 협박, 살인을 동반하고 ▲신도를 직권으로 고문에 착취하며 ▲종말론으로 회유한다 등을 꼽았다.



성명서

1. 기독교행정학이란 무엇인가? 유물론적 기독교행정을 사용한다?
2. 구원론은 기독교행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3. 기독교행정학의 사조(사상)와 사조(사상)의 변천을 고찰한다?
4. 구원론과 구도 행정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5. 구도론과 구도 행정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6. 구도론과 구도 행정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7. 구도론과 구도 행정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8. 구도론과 구도 행정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9. 구도론과 구도 행정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10. 구도론과 구도 행정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기독교시민연대, 기독교사회질서연합, 참소리연합, 기독교부패척결연대, 한국목회자개혁중앙협의회

소진우 목사 2013년-2014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2년 8월	2012년 12월	2013년 4월	2013년 8월	2014년 1월	2014년 5월
5 천보산기도원(우택진원장)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3 관릉배교회(김사은 목사)	2 한얼산기도원(이영균 원장)	1-3 모란문복음교회(양병렬목사)	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8-10 한얼산기도원(이영균 원장)	10-15 팔리민심교회	8-11 성산성안교회(윤영준 원장)	3 갈매산기도원(임예재 원장)	4 남동명성교회(송한철목사)	12-14 남동명교회(최충주)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19 갈매산교회(한규식목사)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 소양교회(조성봉 목사)	19-21 소양교회(박종수 목사)
20-23 갈매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1 천보산기도원(우택진원장)	15-16 정기교회	5-8 김산남기도원(이수영 원장)	13-16 목감장로교회	25-31 특별심야대성회(예복교회)
27-30 성산성안교회(윤영준 목사)	23 갈매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2-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 한얼산기도원	
		29-1 주우리교회(이규환 목사)	19-22 갈매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광은기도원	
2012년 9월	2013년 1월	2013년 5월	2013년 10월	2014년 2월	2014년 6월
2 천보산기도원(우택진원장)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3 C채널 TV예배	4 화석성교위원회예배	3-6 갈매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4 비전교회(양승식 목사)
3-5 주우리교회(이창규목사)	7-9 장암성결교회(강석진 목사)	6-8 참사랑교회(강진수 목사)	7 대진시디아이예배	9-12 인천문교회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12 서암교회(김병국목사)	10 김산남기도원(김성광 원장)	11 주향교회(김홍수 목사)	7-9 별빛교회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3 신교사점중세미나
17-20 고 단 총회	14-16 김산교회(김동찬 목사)	13-15 신암교회(정병서 원장)	13-15 정암교회(임예재 원장)	16 대구열린문교회	16-19 벨벳선교센터(서형범 원장)
24-26 일신제일교회(최한갑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7 갈매산기도원(임예재 원장)	14-15 성지교회	17-19 천보산기도원	23-27 선교지방문
30 천보산기도원(우택진원장)	21-23 참중음교회(이갑삼 목사)	19-6월1 주우리 특별 심야기도회	17 부흥사원수원특강	21 갈매산기도원 금요일아침예배 원장)	
	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 천보산기도원	23 성광교회	
			21-23 인천성산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27 천교사파송예배		
			28-30 판암장로교회		
2012년 10월	2013년 2월	2013년 6월	2013년 11월	2014년 3월	2014년 7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 한얼산기도원(이영균 원장)	3-5 화교연합성결교회	4-9 선교지방문	7 한얼산기도원(박성일 목사)	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2 한얼산기도원(이영균 원장)	5 참사랑교회(강진수 목사)	10-13 은하교회(최진희 목사)	11-13 행복한국교회(박성일 목사)	10 메트로교회(양희옥 목사)	7-10 메트로교회(양희옥 목사)
15-16 정기교회	4-7 갈매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4 오산기도원(국해원 원장)	27 천교사파송예배	14-17 모로마기도원(조선헌 원장)	14-17 모로마기도원(조선헌 원장)
19 성산성안교회(박병현 원장)	8-17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19 남동명교회(최종득 목사)	28-30 판암장로교회	23 성광교회	28-30 전교인물품수령회
22-25 진리교회(송대국목사)	11-14 갈매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0-21 국내미자립교회 순방		24-26 대구중앙교회	
26 갈매산기도원(임예재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4-27 갈매산기도원(김진송 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택진목사)	18-20 광성성결교회(남동수 목사)				
29-31 김진지(가)독교연합성회(최정 현선목사)	21 갈매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2 임피루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28 비전교회(조정원 목사)				
2012년 11월	2013년 3월	2013년 7월	2013년 12월	2014년 4월	2014년 8월
3 주향교회(김홍수 목사)	1-3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1-3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4-9 행복한국교회(박성일 목사)	3-5 원천교회(최성근목사)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9 신교사점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1-13 장원제일교회(최종연 목사)	6-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6 한얼산기도원(이영균 원장)
11-14 동서성교회(라계동목사)	8-10 천보산기도원(신승중 목사)	8-10 천보산기도원(신승중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21 주향교회(이원길목사)	15-19 신교사신학교여를특강	15-19 신교사신학교여를특강	25 사평교회(김창수 목사)		18-21 갈매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5 천보산기도원(우택진원장)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5-28 천문기원(최정숙 원장)
26-28 예수비전교회(이수영목사)	28 세계영교회(차영민 목사)	28 세계영교회(차영민 목사)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한국교회 찬송가 문제점, 개선방향 지적

21세기찬송가는 거룩한 책이 아닌 이익을 위한 책으로 전락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지난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교회 찬송가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교회찬송가대책위원회(위원장 안영로 목사)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안영로 목사의 사회로 한영훈 대표회장의 인사와 이태근 목사의 기도, 홍성식 목사(한국찬송가위원회 총무)의 1발제, 전희준 장로(한국찬송가작가총연합회 대표회장)의 2발제 순으로 진행돼 기자들의 질의와 응답에 이어 김국경 목사(공동회장)의 기도로 마쳤다.

한영훈 대표회장은 “찬송가 문제는 한국교회의 주요 이슈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면서 “이



자리는 어느 쪽을 편들거나 또 어느 쪽을 꺾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자세로 추가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한국교회 찬송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기 위한”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 찬송가의 문제점’을 발제한 홍성식 한국찬송가위원회 총무는 “(재)한국찬송가공회가 2006

년 ‘21세기 찬송가’를 출시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잡음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록된 645곡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한국인 작사·작곡자의 곡 때문인데 일부가 정치적 배려나 (재)한국찬송가공회 회원 간 친분을 앞세워 수록됐다”고 주장했다. 홍 목사는

“(재)한국찬송가공회가 2006년 ‘21세기 찬송가’를 출시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잡음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록된 645곡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한국인 작사·작곡자의 곡 때문인데 일부가 정치적 배려나 (재)한국찬송가공회 회원 간 친분을 앞세워 수록됐다”고 주장했다. 홍 목사는

발언을 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거나 작사·작곡 경향이 전혀 없는 인사들의 곡이 친분관계나 정치적 이유로 수록된 것을 꼽았다.

홍 목사는 “저작자 중에는 사법처리까지 된 분도 있어 후손들에게 과연 찬송가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21세기찬송가는 성도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책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찬송가 작업에 참여했던 전희준 한국찬송가작가총연합회 대표회장은 특히 “상업화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회조직과 저작권, 출판권, 수익금 등 관리운용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면서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찬송가를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작가총연합회 관계자들은 “찬송가의 편집과 관리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정상화를 위해 성도들의 심성과 정서에 맞는 찬송가를 새로 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교회찬송가대책위원회는 공정한 토론회를 위해 (재)한국찬송가공회측에 2명의 발제자를 요청했으나 “행사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고,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그러나 공회측은 토론회 직후 한교연에 공문을 보내와 추후에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공회대, 개교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성공회대학교(총장 이정구)는 지난 30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하루 전인 29일 ‘개교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공공성과 실천적 아카데미즘’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학문의 공공성을 검토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위상과 사회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이며, 아울러 인문사회과학의 위기, 대학의 위기, 나아가 사회의 위기가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학문과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짚어봄으로써 대학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학문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회는 박창길 교수(성공회대 경영학부)와 이시재 교수(성공회대 NGO대학원)가 진행되었으며, 한완상 교수(전 교육부총리/전 통일부총리)가 기조연설에 나섰다.

1부는 ‘공공성과 인문사회과학-성찰 없는 대학과 대학 없는 성찰’이라는 주제로 김진업 교수(성공회대 NGO대학원)가 발표와 홍윤기 교수(동국대 철학과)와

김명철 교수(성공회대 글로벌IT학과)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2부는 ‘공공성과 신학-공공성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손규태 교수(성공회대 신학과)가 발표하고, 강원돈 교수(한신대 신학과)와 양만호 신부(수원 나눔의 집 원장)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3부에서는 최진봉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를 비롯한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가 총평 및 종합토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정훈 연구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내부적으로는 ‘100년을 넘어, 다시 처음처럼’이라는 100주년 슬로건처럼 성공회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대학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반성적으로 검토되었다. 외부적으로는 대학교육 및 학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개혁의 방향과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평이다.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강북제일교회가 결국에는 불법 용역들이 교회를 초토화하고, 교회는 철조망으로 출입이 봉쇄되어 극단적인 사회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총회에서 ‘위임목사 청빙’과 ‘목사인수’가 모두 무효화된 황형택목사측은 사회법에 총회판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일단 고법판결까지는 승소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황목사 측은 광운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평양노회 정기총회에서 위임목사로 정식 승인된 조인서 목

강북제일교회, 양측 폭력과 철조망으로 출입봉쇄

폭력세력에 의해 성도들 턱뼈가 부러지는 등 인근병원에 입원 치료

조인서 목사의 경호인력 완전 철수 결정을 비롯듯 교회가 철조망으로 초토화

사측은 미아리의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황목사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황형택 목사 측 본당 진입으로 양측 물리적 충돌로 사태심각

대법원의 판결을 절대 존중하겠

다고 수도 없이 천명했던 황목사측이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진 일련의 심각한 상황에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며 최소한의 경호 인력마저 철수시킨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결국 그날로 모든 용역을 철수시켰다. 이후 조목사측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 성도들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황목사 측에도 자신의 뜻을 전달해서 신앙인의 양심에 따른 합리적인 대화와 절차를 따라줄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황목사측은 조목사측이 용역을 모두 철수시킨 후에도 자신들의 용역(본인들은 청년부원이라고 주장)을 교회학교를 위한 교육관에 주둔시켰다. 이들 불법용역은 27일 금요일 저녁예배 후 다시 동원되어 중예배당의 유리문을 깨면서 다시 공격을 시작했고, 또다시 많은 성도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대처 상태에서 평화적

인 방법으로는 해결을 모색하던 조목사측은 목요일 저녁 교회를 둘러싼 일련의 심각한 상황에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며 최소한의 경호 인력마저 철수시킨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결국 그날로 모든 용역을 철수시켰다. 이후 조목사측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 성도들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황목사 측에도 자신의 뜻을 전달해서 신앙인의 양심에 따른 합리적인 대화와 절차를 따라줄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황목사측은 조목사측이 용역을 모두 철수시킨 후에도 자신들의 용역(본인들은 청년부원이라고 주장)을 교회학교를 위한 교육관에 주둔시켰다. 이들 불법용역은 27일 금요일 저녁예배 후 다시 동원되어 중예배당의 유리문을 깨면서 다시 공격을 시작했고, 또다시 많은 성도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대처 상태에서 평화적

양측 폭력과 기물파괴로 수십 명의 성도들 부상, 병원에서 치료받아

결국 죽기를 각오한 조목사측 장로들과 성도들의 저항으로 마찰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양측의 장로들이 만나 협상을 했고, 27일 주일에 황목사측은 본당에서, 조목사측은 중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필요한 교회 공간을 각각 분할 사용하는 것으로 임시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 타협안에 따라 27일 예배는 별다른 마찰 없이 양측이 순조롭게 예배를 모두 마쳤고, 이후 새로운 타협을 모색하려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28일 새벽), 조목사측이 중예배당에서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던 중에 황목사측의 용역들이 미리 준비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중예배당의 모든 유리들을 깨고 들어와 폭력으로 성도들을 짓밟고, 소화를 분사하며, 채증하던 성도들의 카메라와 휴대폰을 빼앗고, 모든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내



쫓아 버렸다. 부상을 당한 수십 명의 성도들은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현재 황목사측은 출입구를 포함하여 교회를 둘러싼 모든 공간, 정문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통하는 모든 곳과 깨진 창문 뒤를 포함한 교회 내부까지도 철조망을 치며 일체의 출입을 봉쇄한 상황이다.

조목사측은 갑자기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

고, 조인서 목사는 “참담하고 비통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뉘은 길, 옳은 방법을 고집하다가 결국 순순한 성도들이 다치게 되었다. 미련이 남아 끌도 없이 대화와 타협을 원했고, 선한 방법을 통해 문제가 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친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인: 이종진 목사 이장: 장기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장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수목원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최순길 목사
본지 상임이사 및 논설위원

152-102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02)2683-2091

기독교대한 수원할렐루아농아교회



주일예배안내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담임 임해숙 목사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T/F: 031)224-4947 영상전화: 070-7947-4798
H.P; 010-4611-3221(문자)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 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석/작기 요양원 정동진 해방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총합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총합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 (033)655-0691, 0692 / H.P: 010-6409-0091
E-mail: cnh1091@hanmail.net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주일예배안내

주 일 오전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 벽 5시

담임 박용숙 목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홈페이지 : www.ezob.org 이메일 : usc2810@hanmail.net
전화 : 02- 414 - 1191 집 : 02-423-5154
담임목사 : 박용숙 목사 (010-3775-5154)

2014년 포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 덕 교 회**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사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김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정애,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 lov153@naver.com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담임 박완근 목사
(신분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오전: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오후: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윤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한국경목총회 제37차 정기총회 준비 임원회 열어

한경총 후보 등록 5월 12일~31일까지, 제37차 정기총회 7월 7일 예정



한국경목총회(대표회장 이상재 목사)는 지난 12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2-59번지 (대광교회 김진수 목사)에서 한경총 제3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임원회를 가졌다.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의 진행으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한경총 임원회의 장소를 제공한 대광교회 김진수 목사의 환영사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부회장 김창룡 목사의 힘찬 기도, 협동총무 박용숙 목사의 은혜로운 특송이 있었



다. 이어 직전총회장 허 식 목사는 성경 절 24:15~24절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허 식 목사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시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2부 임원회가 직전총회장 허 식 목사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백시코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권도 관장 박용태 목사의 선

교보고가 있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산하 3000명의 경찰기동대원을 구원하기 위하여 경목활동에 힘쓰고 있는 유공영 목사의 인사가 있었다.

또한 한경총 직전대표회장 허 식 목사는 총회장 이상재 목사를 대신해 한국기독교농아총연합회 제11대 대표회장, 지구촌 농아학교 회의 대표회장 김재호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날 한국경목총회 제37차 정기총회를 위한 준비위원을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에 이효은 목사(감사)를 추대하고,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직전총회장 허 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아울러 대광교회 김진수 목사에서 풍성하게 오찬을 준비하고 고문 박한규 목사의 기도로 축복을 기원했다.

한편 한국경목총회 선관위원장 이효은 목사는 전국 250개 경목교회 김진수 목사에서 풍성하게 오찬을 준비하고 고문 박한규 목사의 기도로 축복을 기원했다.

“세월호 아픔을 희망으로...” 한국교회 하나로

예장 합동 통합 등 주요 교단 및 단체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 출범키로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예장 합동과 통합 등 주요교단과 교계 단체들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세월호 참사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을 출범키로 했다.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연합은 연합기도회와 모금, 치유사역, 공동기도문과 성명 발표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친다. 오는 9일 오후에는 안산제일교회에서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연다. 14일에는 서울에서 연합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또 18일 주일

을 ‘한국교회 애도주일’로 선포하고 기도의 불꽃을 피운다. 애도주일 예배에서는 전국 목회자들이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고 공동기도문을 낭독한다.

성명도 발표한다. 성명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한국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고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건강한 정신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정부에 요청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모금운동도 벌인다. 교회연합의 구호활동은 예장 통합과 합동, 기감, 기성, 침례교단장 등이 참여하는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가 주관한다.

한국교회회방봉사단(한교봉)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는 “세월호 피

해자의 치유를 위해서는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며 많은 교단과 교회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 목사는 “2007년 발생한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때 피해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 130만 명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가 80만 명이었다”며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회복하려면 한국교회가 앞장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목사는 “사고 당한 분들의 회생이 헛되면 절대 안 된다”며 “여사의 빠이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연합에는 현재 예장 합동과 통합, 기감, 기성, 침례 교단과 한교봉, 국가조찬기도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미래목회포럼,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

협의회 등의 단체, 고명진 소강석 정성진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교계 주요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 중이다. 한교봉은 향후 2년 동안 ‘피해자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원봉사자인 일명 ‘돌보미’ 모집·교육과 함께 목회자와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꾸려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안산교회를 중심으로 ‘힐링(치유) 센터’를 구성하는 등 2~3년 정도 진행하는 ‘힐링 프로젝트’ 방안과 더불어 생존자 및 희생자 가족 등의 이야기 등을 모은 백서를 제작한다.

예장통합 총회는 ‘(가칭)세월호 참사 극복을 위한 치유·화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 또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 정기 모임과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기감도 ‘(가칭)감리교회 치유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유영대 박재현 기자 ydyoo@kmib.co.kr

CTS기획공연

천로역정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한국의 근대 첫 번역 소설로 영문학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소설 '천로역정(天路歷程)'을 소재로 한 연극 '천로역정'을 6월 12일(목)부터 8월 31일(일)까지 노랑진에 위치한 CTS본사 아트홀에서 기획 공연한다.

존 버니언의 원작소설 '천로역정'을 무대로 옮긴 연극 '천로역정'은 '믿음과 소망의 길에 서다'는 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북촌아트홀에서 공연되어지면서, 국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원작의 방대한 스토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하여, 참된 신앙과 복음을 전달 존 버니언의 주옥같은 시구들이 극무대와 뮤지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크리스천 배우들이 참여하여, 참된 신앙과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 크리스천 관객들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별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필



고전 통해 참된 신앙과 복음 전달

그림(순례자)의 여행길에서 마주하는 여러 캐릭터들과 함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원작의 등장인물들이 믿음, 소망, 사랑, 분별 등의 캐릭터로 사용되어 원작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공연 자체가 우화와 판타지적인 음악으로 표현되어서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천로역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CTS기독교TV의 담당자는 "이번 공연은 원작의 깊은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출한 이번 공연은 크리스천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크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면서 성경의 진리와 은혜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오는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목‧금(오후8시), 주말(오후 3시)에 CTS아트홀에서 열리며, 인터파크 티켓(1544-1555)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공연개요]

- 공연기간 : 2014년 6월 12일(목) ~ 2014년 8월 31일(일)
- 공연장소 : CTS 아트홀
- 공연시간 : 목‧금 오후 8시 / 토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전석 30,000원
- 관람등급 : 10세 이상
- 관람시간 : 100 분
- 주 최 : CTS기독교TV, 극단 조이피플
- 공연문의 : 극단 조이피플 02-888-2258
-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 간에좋은음식 Best ♣

부추

부추는 칼슘 및 철분이 풍부하고 비타민E, C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간을 보호하고 정도 든 맛있게 해준다. 무릎이 시린 경우 따뜻하게 보호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구기자

구기자는 베타린이 함유되어 있어서 간의 세 포를 재생하고 지방간 간경화에 좋은 음식입니다.

다시마

다시마는 간염에 좋고 몸속에 존재하는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

속은 알콜올과 독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간에좋은 음식으로 제격이며 간이 손상되었을때 섭취하면 회복력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근

당근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간염에 영향으로 기능어떨어진 세포를 회복시켜주고 베타틴 함유도 풍부해서 간염을 치료하는데 당근의 효능이 뛰어납니다.

청국장

청국장은 간에좋은음식 중 대표적인 발효 식품으로 피로한 일들을 많이 하거나 술을 과하게 드실 경우 간의기능을 회복하는데 매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산낙지

산낙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서 낮춰주는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의 해독작용과 기능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건강 음식이라 할 수 있는데 통으로 드시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 잘게 썰어서 드세요.

헛개나무

헛개나무는 줄기를 이용해서 달이거나 액기스를 받아 섭취하면 간의기능 개선 및 독소를 빨리 해독해서 숙취에 좋습니다.

비트

비트는 지방간을 제거하고 간염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좋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간의세포를 보호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목총회 제37차 정기총회 공고

표어 : “대한민국 13만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한경총은 정관 14조 3항에서 6항의 의거하여 총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한경총 정관 14조 3항의 의거하여 총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경총 사무국에 후보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은 해당계좌로 등록기간 안에 입금해야 입후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상재 목사



이효은 목사
화정총현교회



홍향표 목사
사랑의교회

임원명단

- 총회장: 이상재 목사
- 총경총회장: 조용목 목사, 임신행 목사
- 직전총회장: 허식 목사
- 부회장: 김준순 목사, 이정훈 목사, 김창룡 목사, 이창식 목사, 유철규 목사, 김길수 목사, 남규열 목사, 강건섭 목사, 조규성 목사, 김옥환 목사, 임기석 목사, 박동호 목사
- 부회계: 주광삼 목사
- 총무: 홍향표 목사
- 협동총무: 박용숙 목사, 주광삼 목사
- 사기: 박양우 목사
- 회계: 양미상 목사
- 회의록사기: 유종길 목사
- 감사: 이효은 목사 홍철표 목사
- 지도교문: 지왕철 목사, 황원찬 목사, 김진수 목사, 박한규 목사
- 언론대표: 정기남 목사
- 부총무: 조연기 목사
- 부사기: 전남호 목사
- 부회계: 정운선 목사
- 회의록부사기: 최희목 목사

아 래

- 후보 등록 일시 : 2014년 5월 12일부터 ~ 5월 31일 까지
- 구비서류: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1통 / 주민등록 1통 / 각 총회장 및 임원 추천서 1통 소정양식
- 접수처: 한국경목총회 사무국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개봉 3동 370-40
- 전화 : 02-2625-0982, 02-583-1955 · 사무국: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문의 :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010-7585-1955
- 이메일 / <church_7@hanmail.net> · ● 계좌번호: 우체국 013953-01-002221 (한국경목총회)
- 제37회 총회일자는 2014년 7월 7일 월요일 11시
-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주요사이트 한국경목총회 (www.gapck.or.kr)
-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주요사이트 한국경목총회 (www.gapck.or.kr)

한국경총회의 기관지 경찰지저스타임즈는 기자회견을 모집하며 기자증 및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보도증을 제공합니다. 또한 본 총회 경찰지저스타임즈는 2년 전 언론부흥사협의회를 창단하여 1대 총재 이효은 목사를 추대하고 전국 농어촌교회와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지저스타임즈 언론협의회 총재 이효은 목사, 대표 정기남 목사, 한경총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문의: 정기남 목사 010-5468-6574,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010-7585-1955

선교 13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기념포럼 열어

세션교사들 통해 초기 선교정신 다시 회복하자 다짐

한국교회는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은 '한국기독교선교 130주년대회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지난 25일 새문안교회인 더우드기념관에서 출범예배 및 기념포럼을 열고 초기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조명하며 다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예배는 '한국기독교선교 130주년대회위원회' 실무대회장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의 사회로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오정호 새문안교회 목사가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 대회장 한영훈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한국기독교 130주년을 맞으며'라는 제하의 설교에서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값진 신앙유산을 차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다.

실무대회장 정성진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는 "한국교회가 지나온 130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은혜였다"며, "한국기독교는 짧은 선교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자리 잡았고, 근대화운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 한국기독교 역사는 곧 우리의 현대사"라고 밝히고 "한국기독교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한국기독교 근대사에 대한 재인식이 시급하고, 지난 103여년이 성장과 분열의 시대였다면 향후 130년은 성숙과 연합으로 새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환영사와 김동엽 총회장(예장통합교단)의 축사와 장종현 총회장(예장백석교단)의 격려사 후 한국교회원로 방지일목사의 축도로 출범예배를 마무리하였다.

이러진 기념포럼은 알렌과 언더우드·아펜젤러 선교사들의 입국을 전후해서 한국교회의 선교초기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 과제 등을 집중 조망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대동 구미교회 목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첫 발제자로 한국교회사의 산증인 민경배 백석대 석좌교수가 '한국근대화와 알렌의 선교'를 발표하였다. 민경배 교수는 "알렌은 한국선교의 문을 뜬 거인



이다. 한국체제 21년 어간에 3년간 란만 선교사로 일하고, 그 나머지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관으로 지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선교사 정신과 과시명망으로 한국을 섬겼고, 그의 공적으로 한국은 위대한 한국으로 근대화할 수 있었다"며 알렌의 공헌을 △한국 최고위층에서 시작한 선교 △한국선교의 하류층 선교라는 명분 △선교의 문화 개방 △한국화의 시작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공감 △한국의 독립과 자주성의 거대한 기동 등을 들었다.

이어 두 번째 '언더우드선교사와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관하여발제에 나선 임희국 장신대 교수는 "한국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와 목회자 언더우드는 의사이며, 교사였다"며, 제증원을 통하여 시작된 예배 공동체가 외국인교회 선교사들과 토착교인들을 통해 한국 개신교(새문안교회,정동감리교회 등)를 낳았고, 이 예배 공동체가 스스로 발전하여 '제증원교회, 구리개(동원)교회, 남문밖제증원교회'로 변화하다가 지금의 남대문교회로 정착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더우드는 조선 선교에 고민하다 네비우스방법을 채택하였는데,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모든 사람(토착인) 각자는 그리스도

를 위한 교역자이어야 하고, 그는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 △토착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돌볼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교회를 조직해야 한다

△자질이 훌륭한 토착인을 전도인으로 선출하여 그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토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예배당을 짓게 한다. 이 예배당은 이 나라의 전통 건축 양식을 따라 지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네비우스 선교원리를 따라 자전(自傳), 자립(自立), 자치(自治)를 통한 토착교회의 형성이 오늘의 교회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아펜젤러 조선선교와 그 영향'에 대하여 발제에 나선 김낙환 아주사대 박사는 "아펜젤러는 '조선 개화의 아버지'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고, 17년간의 조선에서 아펜젤러의 행보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의 삶이었다"며, "그의 이러한 초인적인 선교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펜젤러가 조선복음화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의도를 가지고 세운 배재학당은 1886년 단 한명으로 시작하였지만 근대문화의 발산장구였을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요람이기도 하였으며, 자주(自主)·민권(民權), 자강(自強)운동과 개화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협성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의 원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펜젤러는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성서 번역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 전후서를 번역하였다. 그의 회생과 죽음은 조선 감리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밝혔다.

논찬에는 이은선 안양대 교수와 장훈태 백석대 교수, 배본철 성경대 교수가 나섰고 주서택 청주 주님의교회 목사가 나서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신뢰회복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분기점으로 삼을 선교 130주년이 역사적 의미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다짐기도로 마쳐졌다.

한국기독교선교130주년 행사는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미래목회포럼 등이 주관해서 계속적으로 전체대회(한국연)와 학술대회(한장총), 심포지엄(한국연)과 '한국교회,이슈&미래' 백서발간(미래목회포럼) 등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한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적 위기에“교계지도자들 손잡고 회개기도”

세월호 참사, 어른들의 탐심 때문이었다. 눈물로 기도, 미안하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월호 대참사라는 국가적 비극과 위기 앞에 통회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다. 크고 작은 감동과 반목으로 분열의 현상을 보면서 기독교계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결성한 '세월호 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이 9일 저녁 9시 안산제일교회(담임 고훈 목사)에서 연합기도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잇따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안명환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는 '이제 눈물을 닦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에 3:40~42, 히 12:11~13)는 제목의 설교에서 "어른들의 탐심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다"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상만 쫓아다녔던 것과, 한국교회가 분열됐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총회장은 또 "손가락들이 손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단은 다를지라도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 참석한 교단장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달라"고 제안을 뒤, 등단한 교단장들과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도 했다.

손인용 목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는 '한국교회의 죄책고백'을 통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전체에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내 죄 때문에 저 어린 생명들이 죽었다'고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재 감동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은 "이 사회에 만연한 금권주의, 무관심, 이기주의, 탐욕, 무사안일주의, 탁상공론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의 주 성령이 오셔서 안산과 이 민족을 위로하시길 기도할 뿐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과 노력으로 행동하며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증언'을 한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 담임)는 자신이 목회자로서 아이들도 이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돼 있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한 뒤,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고 / 슬픔을 참고 / 우리 모두를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라는 내용의 자작시를 낭독했다.

호소문은 김동엽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가 낭독했다. 이 호소문은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할 것 ▲빠르게 구조해줄 것 ▲진상을 빠르게 규명할 것 ▲교회가 공동체임을 자각하며 회개할 것 ▲우리 사회가 생명성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소강석 목사(경기기도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가 사회, 김삼환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가 인사, 조일래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가 대표기도, 임성이 장로(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와 정철욱 목사(안산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가 성경봉독, 안산제일교회 찬양대가 찬양, 박주옥·임경애 교수(백석예술대)가 봉헌송,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가 봉헌기도, 림인식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가 축도를 맡았다.

종보기도로 유재명 목사(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가 인도, 김대현(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고명진(미래목회포럼 대표회장)·유만석(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권태진(예장 합신 증경총회장)·정성진(미래목회포럼 전 이사장) 목사 순으로 각각 "실종자·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하여" "생존자와 가족들, 안산 시민들의 회복을 위하여" "구조자들의 안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에는 현재 예장 합동, 통합, 백석, 기감, 기침, 기성, 예성, 기하성 등 15개 교단과 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연합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스승의주일인 18일은 '세월호 참사 한국교회 애도주일'로 지키자고 밝혔다.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감’ 성품컨퍼런스 개최

‘좌절과 혼란의 시대에 들려오는 샬롬(Shalom)의 메시지!’



(사)한국성품협회 좋은나무성품학교는 다가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교회(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감'의 주제로 "성품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여야 할 교훈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각한 후,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감의 성품'을 회복하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하여 개최한다.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감'의 성품컨퍼런스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주제 말씀으로 이영숙 박사((사)한국성품협회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현 건양대학교 교수)가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하늘의 소리 샬롬

(Shalom)"의 주제 강의로 시작된다.

주제강의에 이어 하나님의 성품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감"의 성품으로 전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함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체험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비는 2만5천원이며, 5월 15일까지 사전 등록시 2만원이며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는 1만원의 특별할인이 주어진다.

(문의: 02-3472-1600)

국제자연치유선교학술회 봄 학기 세미나 시작

국제자연치유선교학술회는 2014년 봄 학기가 시작되어 매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역선교를 위해 침술·카이로프랙틱·부항·홍채학·경락수기요법·자연건강 효소·쑥뜸·약초를 통한 경험방·고혈압·당뇨 등 난치성질환 비방·자가 진단 테스트·항암 등 교육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선교사역에 활력이 되는 귀한 강의가 시간 마다 진행됩니다.

한 교회에 두 세 사람만이라도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이웃초청 전도에 큰 활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선교사 지망생들은 꼭 받을만한 선교에 필수적인 자연치유 교육입니다. 특별히 미자립교회 재정확보와 목회자 노후 대책 방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교회 두 명 정도씩만 참석해서 전문사역자 훈련을 받아 놓으면 선교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소 : 4호선 대야미역에서 큰길 쪽 200m지점 대성프라자 4층 새중앙교회,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657-1 많은 참석바랍니다.

국제자연치유선교학술회장
허 식 목사 010-3348-6374
국제문화예술신학원장 김창룡 목사

시온 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임동보수총무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404-709 인천시 서구 경서동 태평상베르 1차(a)
106동 1402호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임동보수총무회장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30

153-8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02)3281-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임동보수부총회장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31-221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승기 목사
본지 상임이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139-869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임동보수 서기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70)4220-7735, (053)741-7732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임동보수 회의록서기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29-81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다니엘 6장 강해 (17)

단 6장「다니엘은 불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상하지 않아」

영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

1. 다니엘1~6장까지 종합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은 포리와 같다. 순둥과 순안과 같다. 그래서 다니엘서 가 중요한 것이다. 다니엘서가 주의 재림에 관한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 비밀임을 먼저 깨닫게 되면 실제 역사적으로 실제 인물들로 나오고 있는 기록이지만 이것이 재림의 때에 연결되어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 이와 같은 영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예표적으로 미리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이다.

실상으로 미리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이다. 마 24장 15절에 다니엘서의 말씀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성취될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 다니엘서이므로 이미 상고한 1장부터 6장까지를 종합 상고한다.

1장,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유다 왕과 성전 기병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불이신 것이다.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에도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불이신다(계17:17). 적그리스도가 힘이 세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 붙여 그들을 풀꾸으로 해서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순교케 하여 순교자의 영광을 입혀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유다자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을 먹기로 결심한다. 유다자손은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이니 곧 왕통신앙인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윗의 기업을 소망하고 그 기업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유다 자손이다.

유다가기업이 있는 자들이 주 재림시 '첫째 부활' 하여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자들이다(계20:4~6).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며 하늘소망의 생수 같은 기쁨으로 살며 신앙정절을 지키는 유다자손임을 나타내 주심으로서 오늘날 영적 유대인들의 생명 길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들의 심령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

2장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이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한 것은 육신 목숨 살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 것이다(마6:9).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세상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또 그 이후 주 재림 때까지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고 하늘의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 주셔서 바벨론의 영광에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의 성도들에게 오늘날 살아 계시어서 살리시며, 또 지극히 높이고 계시는 것을 보여준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순교신앙에 서 있는 것이다.

풀무 불에 던져 질 지라도 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물주의 뜻대로 불이 쓰여 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불이 태우는 것이다. 이것이 '일원론 신관'이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일원론 신앙'이다.

4장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다. 그분의 권세로 통치해서 이렇게 커진 것이다. 종전에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왕이고 자기가 다했다고 알았는데 이제 깨달은 것이다. 자기가 '일곱 해' 동안 소처럼 돼서 풀을 먹고사는 징벌을 받았고 버릴 수도 있는데 다시 깨우쳐서 자리를 세워서 더 영화롭게 하여 영광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영광을 입혀주시어 이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즉 세 가지를 깨달은 것이다. 첫째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나라의 왕이 실재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징벌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다. 셋째는 영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

나님을 깨달은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5장 교만한 자에게 말씀으로 경고 책망했으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한 왕을 징벌로 다시 돌이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 부한 5장의 왕에 대하여 대조하여 계시 하셨는 바, 느브갓네살왕은 히브리서 6장 7절의 땅과 같아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벨사살왕은 히브리서 6장 8절의 땅과 같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버림받고 저주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고 만다.

6장 다니엘은 순교신앙을 초월한 것이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 다니엘의 생명이다. 다리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인정한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것이고, 다니엘은 순교 신앙보다 더위에 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나온다. 이미 순교신앙에 서 있고 말씀을 증거하여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살려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 일을 하는 자의 신앙 위치와 같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에 세워지려면 3장을 거쳐서 6장에 올라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미에 인침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다니엘은 144천의 종의 신앙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3장에서 순교신앙으로 올리시려는 역사를 계속 하시는 중, 후에 7년 환란의 날에 쓰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뽑으시는 역사다.

장한국 목사

주서량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연분부총집 부총재

* 선교칼럼 - Are You World Changer?

도시선교의 한모퉁이 - "소외된 이웃을 찾아라"!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준행하는 거룩한 행진이다”

DCS를 위해서 18명의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섬기고 있다. DCS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경적 교육법으로 어린이들을 교육 함으로 그들이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여름 방학 기간(6. 7. 8월)에는 DCS가 3회에 걸쳐서 여름 캠프를 한다. 이 캠프 또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으로 등록 받는다. 이때에 DCS에서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방학 때는 여름캠프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있다.

금요일 점심에는 지역에 홀리스들을 위해 도넛, 치킨, 피자 등을 기부 받아 나누어준다. 지금은 차가 부족해 음식을 모두 받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기부 해주는 곳이 없었다.

하지만 신종우 목사와 김병우 목사는 직접 방문하며 사역의 목적을 이야기했고 지난 3

김창룡 목사
하나님미디어자신교회 담임목사
본지 선교 칼럼리스트

년간 꾸준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여러 곳에서 기부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전 9시부터 타코, 치킨, 피자집을 다니며 방동창고에 들어가 음식을 받는다.

3시간 빠듯하게 정신없이 음식을 나르고 홀리스들이 모인 곳에 가면 10여분만 에 음식들은 주인을 찾아 사라진다. 음식을 나눌 때 그들에게 God bless you를 말하면 그들도 곧 잘 따라한다. 아무 빛도 이익도 없어 보이는 이 거리 사역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힘이 되

는 동역자 들이 생겼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캐롤론 한인 제일 침례교회는 노인 복지, 장애우 복지, 그리고 기독교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지역사회를 위해 섬기고 있다.

지난 2010년 달라스 종합 복지관에서 시행한 미디어케어 갭신, 세금보 및 발달장애 세미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세미나, DFW 영사업무는 한인사회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의 신뢰 높은 관계도 형성되었다. 지난 12월 21 연말감사회에서는 2010년 한해 동안 달라스지역을 섬긴

사람들, Area Agency on Aging, Connect to car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미국정부기관), FBCC(미국교회), 이 함께 모여 그 열매들을 보며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나이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넘어 서로가 사랑하고 감사하

는 시간이었다.

또한 김병우 목사는 2014년3월22일 DCS와 달라스 장애우들을 위한 Beautyfull Chncret를 기획하고 기도하며 진행도 하였다. 특별히 한국인이며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린리스트 박지혜양이 바쁜 시간을 내어 협력해 주었고 그의 연주는 그곳에 모인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

21세기 도시선교의 선교의 전략의 한부분이다 도시는 점점 거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소외되고 병들고 좌악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중보하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한사람을 들어 역사하시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자들을 통하여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를 찾고계신다".Are You World Changer?

나부터 회개합니다 회초리 기도회

세월호 추모와 나부터 종아리 걷어붙이고 회초리 들고 치며 회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지난 29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내 공식 합동 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헌화했다.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와 공동회장 등 40여 명은 다른 추모객들과 함께 한 시간가량 줄을 서서 헌화를 마쳤으며, 헌화 후 합동분향소를 찾은 추모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기독교 연합회(대표회장 유재명 목사) 부스를 방문해 함께 기도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자녀를 잃고 가슴



은혜를 구해야 한다"며 "한교연은 고통당하는 안산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도했다.

안산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유재명 목사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이들 중 53명이 안산 지역 교회에 다니고 있고,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 2명도 그 중에 포함돼 있다"며 "안산 교회와 시민들이 너무나

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한교연 대표회장님과 교단 대표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분향소 방문은 예상 합동선목 총회장 김국경

목사, 예장 호헌 총회장 김바울 목사, 예장 진리 총회장 송금자, 예장 개혁신교 부총회장 강동규 목사, 재난구호위원장 김동근 장로, 문화예술위원장 장은화 장로를 비롯, 각 교단 총무와 사무총장 김춘규 장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교연은 5월 1~2일 용인성민수양관에서 진행하는 제2차 멤버십 워크숍에서 세월호 참사로 비탄에 잠긴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월호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은행 807701-00-004031 예금주 사)한국교회연합

한교연은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예정되었던 한국교회 목회자 축구대회와 평화통일 음악제 등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교연 세월호 희생자 공식 합동분향소 헌화

한교연, 세월호 유가족 돕기 모금운동
목회자축구대회, 통일음악제 등 연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지난 29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내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헌화했다.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와 공동회장 등 40여 명은 다른 추모객들과 함께 한 시간가량 줄을 서서 헌화를 마쳤으며, 헌화 후 합동분향소를 찾은 추모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기독교 연합회(대표회장 유재명 목사) 부스를 방문해 함께 기도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자녀를 잃고 가슴을 치고 있을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입히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훈 대표회장은 "이런 매일수룩 예수 믿는 이들이 위로를 전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며 "한교연은 고통당하는 안산의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

해 물심양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도했다.

안산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유재명 목사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이들 중 53명이 안산 지역 교회에 다니고 있고,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 2명도 그 중에 포함돼 있다"며 "안산 교회와 시민들이 너무나 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한교연 대표회장님과 교단 대표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분향소 방문은 예상 합동선목 총회장 김국경 목사, 예장 호헌 총회장 김바울 목사, 예장 진리 총회장 송금자, 예장 개혁신교 부총회장 강동규 목사, 재난구호위원장 김동근 장로, 문화예술위원장 장은화 장로를 비롯, 각 교단 총무와 사무총장 김춘규 장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교연은 5월 1~2일 용인성민수양관에서 진행하는 제2차 멤버십 워크숍에서 세월호 참사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일 교회



담임목사 이 이 중

장로 : 신 호 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 714-1426, 7236



5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지혜로운 가정

성경: 잠언 1장 1-6절 찬송가 429장

잠언의 말씀들은 실생활에 여전히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특징은 경건함과 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은 이 세상에서 평안함과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고 나중에 영생에도 이르게 되지만,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은 장차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교훈을 잘 깨달아서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 또한 누리는 지혜로운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성경: 잠언 1장 7절 찬송가 621장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한 지식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경여야 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스스로 계산 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교훈을 듣고 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

성경: 잠언 1장 8-9절 찬송가 559장

본문에서 '네 아버지의 훈계'와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

모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행하는 부모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 또한 부모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을 따르지 않는 삶

성경: 잠언 1장 10-19절 찬송가 348장

본문의 교훈은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않아야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남에게 피해를 끼쳐야,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은밀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재물을 위해서는 불의한 방법으로도라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18-19절 말씀이 바로 악한 자들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악한 자의 길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살전 5:22).

지혜의 말씀

성경: 잠언 1장 20-23절 찬송가 204장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비밀이 많고 속이고 위선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만전하여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다'의 뜻은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천하에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

성경: 잠언 1장 24-28절 찬송가 336장

어리석은 자들은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악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거절하고 대적합니다. 본문은 그런 자들에게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으며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면

과 교훈을 기쁘게 받아 재앙을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

성경: 잠언 1장 29-33절 찬송가 408장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말로가 나타납니다. 29절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32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퇴보(변질)하고 안일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와 목적은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세상의 쾌락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지는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 (33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 잠언 2장 1-6절 찬송가 524장

사람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그의 가치관과 인격이 정해집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해답인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지시며 온갖 지식과 명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 잠언 2장 7-9절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히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7절)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의로운 생활이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패도 하시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때 재앙이나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지혜로운 자는 더욱 의롭고 선한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분별력

성경: 잠언 2장 10-15절 찬송가 383장

본문은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며 악한

자들 틈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근신'이라는 단어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어찌어찌 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길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음란 풍조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경: 잠언 2장 16-19절 찬송가 289장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음란 풍조에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음란한 세상 문화는 모든 것과 듣는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온갖 대중문화들은 음란함을 조성하고 심지어 합리화까지 합니다. 가요,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또는 교양 프로그램들 통해서까지 교묘하게 음란함을 정당화하고 합리화 합니다. 또한 인터넷 세상은 더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음란 문화를 조성합니다. 본문은 음녀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 길을 얻지 못한다(19절)고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해 음란한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칼럼

“모세의 자리”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시대에 태어나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노예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의 언어와 풍습을 간직하고 살아온 단일민족으로 선민의식과 자부심을 가진 민족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크다. 우리도 애정 36년간의 강점기 동안에 우리의 언어와 글과 인명까지 박탈당하는 속에서 독립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법과 생활규범을 가르쳤으며 그 법을 자손만대에 지키라고 명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며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하고 행치 아니하며”(마태23:2-3)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은 당시 정치지도자들로 존경의 대상이었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 해야 함을 강조한 말씀이다. 지도자가 모든 분야에서 말만하고 실천이 없다면 위선과 거짓으로 격리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별히 정치지도자 들이 말만하고 행함이 없다면 지직찬 내용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언행일치라는 삶은 물론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말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격은 신뢰에 있는 것이다. 그 신뢰가 깨어진다면 모두가 돌아서는 것이다.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은 국민의 신뢰는 물론, 발전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다. 이제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당별로 선거에 출마하는 새로운 인물들은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 후보들은 출마지역 대형건물에 인물사진과 정당과 이름을 홍보하고 있다.

출마자들이 지방발전을 위해 최선을 삶을 살아왔다면 대형인물 사진을 걸지 않아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 앞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면 유권자들은 무한한 협력과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정치지도자 들이 모세의 자리만 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정한 희생의 삶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임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자를 보내소서”(출 4:12-13) 진정한 지도자의 표상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장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 모세를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다.

글쓴 6·4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국가적 어려움과 북한의 남침압박과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에 임하게 되었다. 사회혼란을 틈타 국론분열을 조장하려는 일부세력 들에게 선동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삶은 생명적이며 계속적이며 활동적인 것으로, 위대한 업적과 명예 보다는 작은 신뢰가 더 중요한 것이다. 지속적인 발전으로 신뢰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자.

정치인들의 좋은 정책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적인 일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훌륭한 지도자로 각인 될 것이며 아름다운 정치 역사를 남기게 될 것이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정교회로
본지 성임이사



세월호 참사 위로와 회복 위한 연합기도회 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국교회 가 하나되어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위로와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세월호참사회복을위한한국교회 위원회와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지난 9일 오후 9시 안산제일교회에서 '세월호 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를 갖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할 것을 결단했다.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 민여명이 참석한 연합기도회에서 세월호 참사회복을위한한국교회위원회 위원장 김삼환목사는 인사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으며 이 땅을 떠나갔다”며 “참 위로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희생자의 가족들과 안전지역, 대한민국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기도회 설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안명환목사는 “세월호 참사는 바로 내 아픔이요, 우리교회의 아픔이요, 조국의 아픔이다”면서 “이제 눈물을 닦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 끝없는 여인처럼 겸손히 엎드리라”고 선포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 용재감독은 “무고한 생명을 잃은

것에 애절한 마음으로 울기위해 모였다”면서 “성령님이시여 하늘 문을 활짝열고 안산 땅에 오시옵소서, 부끄러워하며 자책하며 분노하는 이 민족에게 오시옵소서”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소강석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연합기도회는 기독교대한성령교회 총회장 조일래목사의 대표기도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임

성이장로와 안산기독교총연합회 중경회장 정철목목사의 성경봉독/안산제일교회 고훈목사의 헌장중언/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동엽목사의 정부와 사회,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낭독/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중경총회장 립인식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특별히 호소문 낭독에 앞서 안산기독교연합회 회장 유재명목사의 인도로 중보기도가 열렸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김대현목사가 실종자,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하여 /미래목회포럼 대표 고명진목사가 생존자와 가족들, 안산 시민들의 회복을 위하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만석목사가 구조자들의 안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권태진목사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단적결을 위하여/전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정성진목사가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모인 전 현직 의원은 안산기독교연합회를 통해 세

월호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위로와 회복 사역에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요 교단 교단장 및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은 지난 5일 잠실롯데호텔에서 긴급모임을 열고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세월호참사회복을위한 한국교회위원회' (위원장 김삼환목사)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후 위원회는 교단과 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주요 교단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안산제일교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를 개최하게된 것이다.

말(오후3시)에 CTS아트홀에서 열리며, 인터파크 티켓(1544-1555)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국내 및 해외 부흥성회 인도

설동욱 목사(서울예정교회)

설동욱 목사(서울예정교회)는 지난 5월 11~14일 남양주시 기독교총연합회 대성회 인도 후 캐나다 위니펙 지역복음화대성회 인도차 15일 출국하여 21일 귀국한다.



CTS기획공연 ‘천로역정’

— 고전 통해 참된 신앙과 복음 전달 —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는 한국의 근대 첫 번역 소설로 영미문학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소설 '천로역정(天路歷程)'을 소개한 연극 '천로역정'을 6월 12일(목)부터 8월 31일(일)까지 도량진에 위치한 CTS본사 아트홀에서 기획 공연한다.

존 버니언의 원작소설 '천로역정'을 무대로 옮긴 연극 '천로역정'은 믿음과 소망의 길에 서다'는 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복

아트홀에서 공연되어지면서, 국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원작의 방대한 스토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하여, 참된 신앙과 복음을 전달 존 버니언의 주옥같은 시구들이 노래로 창작되어지고, 국내 연극무대와 뮤지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크리스천 배우들이 참여하여, 참된 신앙과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 크리스천 관객들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열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필그림(순례자)의 여행길에서 마주하는

언더우드의 기도

어제 우리교회 개회예배 때 104세 되신 방지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 습니다.

설교 중에 예화로 사용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서 소개합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문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했 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즐거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루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했 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북한 조평통의 본격적인 반정부 내란 선동

박근혜 대통령 극렬비방 중상, 정권타도 국정원해체 동시투쟁 지령

8일 남침전법집단 천안함 폭침 테러주범 김정은 일당이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보도 1062호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에 편승 남한 내 종북 반역세력에게 정권타도와 국정원 해체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라고 극렬하게 선동,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하였다.

조평통은 댓글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난 대선이 협잡 모략선전이라고 규정, 세월호 사건으로 남재준의 책임이 묻혀가고 있다며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모략과 음모의 총본산인 정보원을 해체하고 그 수장인 남재준 놈을 박근혜와 함께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란선동투쟁지령'을 하달했다.

또한 9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살인마, 악녀에게 천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악담자주를 퍼부으면서 우리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극렬하게 비방 중상하였다.

조평통은 중국 등 외신을 인용하



는 형식으로 우리정부의 세월호사고 대책 관련 비난수위를 높이면서 세월호 참사에 이은 지하철 사고를 거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나 떨어 진 것이 '신뢰의 위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기에 광분하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남녀 땅을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 버린 산당(山堂:국집)집 여주인"이라고 중상비방하면서 "박근혜를 더 늦기 전에 청와대에서 끌어내기 위한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일파만파로 번

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과장 왜곡 날조 반정부 투쟁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피기에 안간힘을 썼다.

조평통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남조선 땅에 상서롭지 못한 악운이 서리고 재앙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라는 요언(妖言)과 유언비어까지 날조 민심혼란을 부추기고 박 대통령을 "악당집의 능수, 늑대리 창녀"라고 비방하면서 종북 세력에게 대통령 퇴진투쟁 '구호와 스톱건'을 구체적으로 시달 했다.

북괴의 이런 행태는 장성택 사건으로 통치위기를 자초한 김정은이 남한 혼란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보려는 악랄한 수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처럼 비열하고 악랄한 구호와 슬로건이 종북반역세력의 집회시위 폭동현장에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정부와 경.검.군(警.檢.軍) 및 국정원 등 공간관계기관은 종북 반역세력과 북괴 대남선전선동 및 대남침투공작기구가 내통 결탁하는 경로를 차단 봉쇄하면서 폭동 및 소요, 내란음모를 적시에 색출 적발 차단하는데 조금의 유언아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삼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조국을 사랑하고 내 가정 내 직장을 지켜야하는 애국시민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와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적대(敵對)하여 폭동소요를 획책하고 있는 내란음모 파괴세력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자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추락한 소형무인기 3대, 북한서 발진된 것 확인

지난 3~4월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는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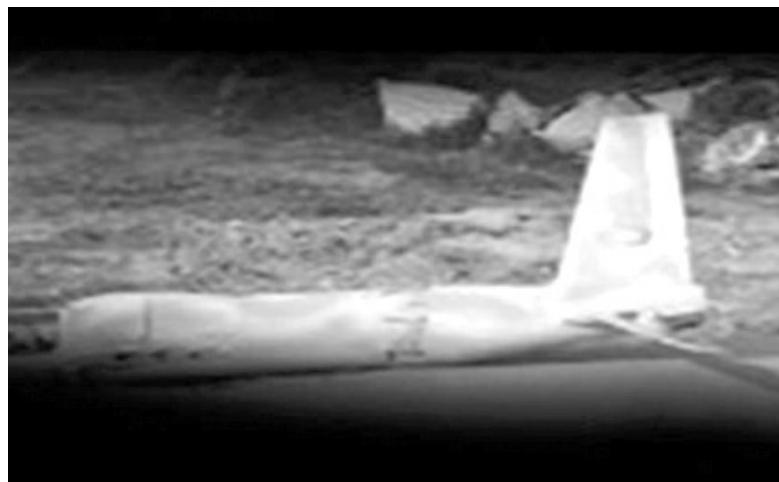
국방부는 8일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동안 실시한 공동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Smoking Gun)로 3대 모두의 발진지점과 북귀지점이 북한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령도에서 3월 31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북귀지점이 해주 남동쪽 약 27 km 지점임을 확인했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

특히, 비행조종컴퓨터에 저장된 실제 50분 동안 비행기록이 비행계획과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서 3월 24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북귀지점이 개성 북서쪽 약 5km 지점임을 확인했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도 일치했다.

삼척에서 4월 6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북귀지점이



경강 동쪽 약 17km 지점임을 확인했으나,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면서 "우리군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고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인식, 현행 방공작전태세 보완과 대응능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현 작전태세와 작전활동 보안을 위해 전 제대 경계 및 대공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무인기 탐지·식별을 위한 가용 수단을 조정에 운영하고 있다.

향후 대응전력 보강은 우리 지형과 작전환경에 부합한 탐지·타격 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장비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탐지·타격이 가능한 통합체계를 긴급전력으로 최우선 구축하고 기타지역(시설)은 현존전력과 추가보강전력을 최적화해 보완할 계획이다.

서울/박세훈 기자

충격! 경악! 구원파의 부패상 상상을 초월해

유병언 일가의 정경유착 부패상은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인 유병언 일가의 치부 과정과 정경유착 부패상은 국민의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로 세월호와 또 다른 여객선 오하마나 호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침몰 당일까지 운항해 왔던 과정, 그리고 오대양 사건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유병언이 불과 몇 년후 세모그룹을 부도내어 형을 살기도 재기하여 청해진해운을 설립한 과정,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 친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정황은 교활함과 악랄함을 치를 떨게 한다.

또한 그런 인간에 협조, 모든 불법행위를 가능케 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인사들의 극단적인 부패상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증언 중에는 국가에 혼란이 있을 때마다 구원과 종교와 유병언 일가의 입김과 자금이 한몫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어 국민을 아연케 했다. 종편 방송에 출연한 전 구원과 교도이며 유병언 회장의 측근이었던 인사는 "지난 광우병사태 촛불집회때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여성들이 유병언 회장의 지시에 의해 거리로 나왔던 것"이라고 증언, 사람을 놀라게 했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논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

유병언 같은 사회의 해충은 절대로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원치 않는다. 그런 부류는 언제나 파변과 억지 그리고 사람을 유혹하여 치부하기 때문에 부패한 권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바라는 한편 흑역 죄상이 탄로 날까 염려, 뇌물로 보화를 들고 돈에 환장한 부패권력은 그런 부류의 인간들과 즐겨 어울리게 마련이다.

수천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보유하고 직접 표를 줄 수 있는 신도 수십만을 거느린 유병언의 존재는 김대중 노무현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이고 1차 로비 대상이었던 결의 누군가도 도와주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 청해진해운과 구원파로 인해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

도로 떠들썩한데도 제1야당의 박모 의원 등 실세들이 입을 봉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하연 김대중 노무현에게 유병언의 존재는 여러 모로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해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선거하면 표주고 평상시에는 보험금 내고 권력을 잃었을 때는 신도들을 동원해서 정적 흔들기에 앞장서주었으니, 그보다 더 큰 조력자는 없었을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이 유병언이 중죄를 짓고도 청해진해운을 설립, 관과 해경의 비호 아래 해로를 독점하고 무법자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공생관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친노 전당도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싫어하기로는 구원과 보다 더 하지만 정권을 빼앗긴 이후로는 막강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동력까지 잃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불복을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오히려 지지율만 추락했고 그 사이에 동지 전교조는 범의노조가 되어 불법 단체로 전락했

다. 민노총은 철도 파업 실패로 발목 빠진 교양이가 됐고 통진당은 해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방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도무지 승리할 기미가 안 보여 고민하던 부류에 세월호 사건이라는 화재가 터졌다. 일반인도 아닌 학생 수백 명의 죽음은 그동안 숨을 죽이고 살아오던 종북 좌파가 전면에서 나서 선동하기에 더 없이 좋은 소재인 동시에 종북의 존재를 알리고 반정부 투쟁에 나설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그렇게 선동은 시작됐다. 유가족 틈에 끼어든 종북 세력은, 정부의 잘못된 부각시켜 유가족과 정부를 유리시키고 좌파 언론을 총동원 선정적인 기사만 쏟아내는 한편, 다이빙 벨 같은 고철덩어리와 함께 등장한 삼류 인물을 TV 화면에 등장시켜 무능한 정부 무능한 군경으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제도권 언론 누구라도 비위에 거슬린 발언을 하는 자는 유가족을 동원, 가차 없이 집단이

지메를 가해 퇴출시켰다. 거기에 구원파도 분명 한 몫을 했을 게 뻔하다. 이들 구원파는 유병언 일가를 보호할 목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언론인 집단 이지메 훨씬 전부터 MBC 앞에서 농성시위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힘을 빼려는 이들의 의도는 성공하지도 못했고 성공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앞까지 갔던 유가족은 언론인 한 사람 사퇴로 끝이 났고, 연일 분향소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조문객을 촛불집회로 유인하려는 종북 좌파의 노력도 헛수고에 그쳤다. 워낙에 국민이 냉담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인데다가 속속 드러나는 청해진해운의 비리와 유병언 일가의 죄상이 너무도 엄청나 허물을 정부에 뒤집어 써올 논리가 부족하고 초기 구조 활동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전에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 척결이 우선이라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종자들이 거지반 인양되고 나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와 국가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과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제시될 것이고 그로써 좌파의 광란도 더 이상 지속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단 없이 진행될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유병언 일가의 사기 행각 수사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관련 인물들의 부패를 대거 밝혀내 해수부와 해양경찰의 존재 여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정치권 영역의 수사에서는 여야를 망라한 의외의 정치인들의 명단이 드러나 또 한 번 세인을 놀라게 할 공산도 크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작심하고 메스를 든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종북 좌파의 속주는 좁아들 것이고, 그에 따라 자금줄도 끊어져 앞으로는 종북 세력이 전과 같이 날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에 따라 대폭 강화된 부정부패, 반국가 행위자, 반사회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이 철저하게 적용되어 부정부패와 종북 없는 나라로 가지는 희망도 가져 본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교회



담임 김창목 목사
한경총 부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	주일 대예배 치유와 회복 찬양예배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오후 02:00 오후 04:00	GDPC 본당 GDPC 본당 치유와 회복 수양관
화	성령축제 1부 성령축제 2부	오전 11:00 오후 02:00	GDPC 본당 GDPC 본당
수	수요예배	오후 09:00	GDPC 본당
금	중보기도의 밤	오후 09:00	GDPC 본당
토	시명자 학교 천양시명자 학교 영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후 03:00 오후 04:00	치유와 회복 수양관 GDPC 본당 치유와 회복 수양관
매일	새벽기도(토요일 제외)	오전 05:00	GDPC 본당

445-895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424
☎031)366-2236 홈페이지http://www.gdpc.kr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충현교회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총사임의회 총재)
사무장로: 신오석, 정종국, 김홍령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4들어
"말씀에 이만하여 다음 세대를 감동시켜 축복하소서"
(고후 1:18-20)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입니다.
막연히 좋은 미래가 오리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미래가 있고, 지상에서
믿음 지킬 때 미래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1.예배의 삶이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2.온전한 심일조와 감사로 물들라.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라.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라.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밤 9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주일~금요일)
유-초등부: 오전 9시
중-고등부: 오전 9시
청년부: 오후 3시30분

〈도시행복〉
1 중산 -- 화정 85-1 교당동 -- 송정전철역
850 교당동 -- 풍신역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좌석버스〉
85 교당동 -- 김포공항 800 내곡동 -- 신촌
877 김포 -- 행 871 872 -- 서울
(지하철역)

82 내곡동 -- 영등포 1900 분당선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거리)

주소: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http://www.mokpojuan.com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모정선 신길현 모정은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김미경
안윤기 김진희

협 동 목 사: 장정화(은퇴) 서기욱
전 도 사: 주정희 진인순 윤영욱
교육전도사: 송선택

시 무 장 로: 고재원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휴 직 장 로: 임복희
은 퇴 장 로: 노남규
협 동 장 로: 이병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Ju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목포시 청호로159 (북항동)
TEL. 061-272-4908 FAX. 278-0693
남악예배당: 목포시 남악2로 52번길 남악크리닉A동 301
TEL. 061-287-0692

제11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수상자 확정

성령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받는 신앙 메달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이사장 인준배 목사) 심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제11회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담임장), 부흥사부문 강현식 목사(평택순복음교회 담임장), 선교사 김종양 목사(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선교사), 평신도 정금성 권사(새에덴교회 권사) 등 4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목회자부문 수상자 양병희 목사는 영안교회를 담임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성목회, 건강한 영혼 가정 사회를 만드는 치유목회,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육목회,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젊은이를 키우는 비전목회로 내적, 외적으로 균형잡힌 목회를 이루었다. 영안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시키고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하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흥사부문 수상자 강현식 목사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로 서 국내외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한국교회의 부흥에 크게 기여했



(왼쪽부터 순서대로) 양병희 목사, 강현식 목사, 김종양 목사, 정금성 권사.

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20대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교회 개혁 경신을 이끄는 2017종교개혁 500주년성령대회의 사무총장으로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 성령운동의 큰 역할을 감당하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선교사부문 수상자 김종양 목사는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지 7 나라에서 30년 동안 원주민 선교를 해오며 오직 복음과 교육으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있다. 콩고, 말라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에 우물파기 사업,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신학대학, 종합대학을 설립하였으며 스와지기독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아프리카에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기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평신도부문 수상자 정금성 권사는 평생 새에덴교회와 소강석목사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삶으로 새에덴교회의 개척부터 현재의 부흥을 이루기까지 밀알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화순 백암교회 재건축 봉헌 및 캄보디아 프놈펜에 교육과 복지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고 전국 미자립 교회 목회자 초청 생명의나무회 컨퍼런스를 중국에서 개최하여 평신도 사역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여하였기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본 상은 해당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성령의 사람들에게 시상하고자 제정됐다. 길신 주목사를 통하여 발원된 1907년 성령운동을 계승하여 한국교회 정체성을 세우며 기여하고자 상의 명칭을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

온(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으로 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역대 수상자는 목회자 장희열 목사, 피종진 목사, 고훈 목사, 주남석 목사, 나경일 목사, 유재필 목사, 김지현 목사, 소강석 목사, 부흥사 김우영 목사, 김동엽 목사, 손학봉 목사, 이재창 목사, 최낙중 목사, 노희석 목사, 장향희 목사, 이종석 목사, 오병열 목사, 교육자 민경배 교수, 한영훈 총장, 정근모 장로, 강근환 교수, 주재우 교수, 김흥기 교수, 박명수 교수, 백종구 교수, 교계연합 노태철 목사, 김용완 목사, 유순일 목사, 박홍일 장로, 세계선교정우성 목사, 최원철 목사, 이형자 권사, 홍요셉 목사, 김일 목사, 문화예술 손미선 교수, 이경미 피아니스트, 한진 교수, 권태진 시인, 임종달 시인, 김광자 작곡가, 사회복지 서종로 장로, 사회봉사 정창근 장로, 김창명 장로 등이다.

제11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은 2014년 5월 29일에 열린다.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미국 거주 한인여성 커뮤니티 <미시 USA> 일부 회원들이 NYT에 세월호 참사관련 한국정부의 대책을 비난하는

전면광고 게재한 일에 대해 규탄 성명 발표

<성명서>

세월호 관련 광고 게재한 <미시 USA> 일부 회원들은 태어난 조국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

지난 5월 11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의 커뮤니티인 <미시 USA> 일부 회원들이 NYT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대책을 비난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다. 우리는 광고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고국인 한국정부를 폄하하는 것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이 잘못되고 왜곡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민간 잠수전문가와 미 해군의 도움을 거절했다.

실제는 미군에서 정비,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술자만만 해주겠다고 해서 기술자만을 받고 있다. 민간잠수사들도 구조사력의 일원으로 활동에 투입되고 있다.

2. 한국정부가 언론을 검열하고 조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한국의 언론은 현재도 지나칠 정도로 과잉보호 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영상들도 자유롭게 소통되

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이 같은 지나친 보도와 과잉 소통으로 구조활동이나 정부 대처가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3. 언론 통제와 대중감정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과 박사모 논란은 이미 해당언론사가 오보로 사과한 내용이다. 또한 진도 방문 시 생존 아이도 그 고모가 데려온 것으로 판명났다. 그럼에도 오히려 일부 언론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며,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에 근거하여 그들의 고국과 고국의 정부를 폄하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고국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고와 이에 대처하는 정부가 부끄럽다고. 그러면 그들은 고국 정부 대책을 왜곡하고 날조하여 미국의 유력지인 NYT에 전면광고를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미시 USA>의 일부 회원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례가 없는 참사로 고국이 고통받고 슬픔에 잠겨 있음에도, 그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국의 슬픔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비난행동은 누워서 침 뱉기와 다를없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다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는 국외에 나가서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세계인을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2014년 5월 13일 세월호 관련 광고 게재한 <미시USA>의 일부 회원들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자유경제원, 염마부대, 시민변호사모임, 한국다문화센터,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대정신, OTV, 피랍탈북인권연대,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21세기교육운동연합, 새날을여는 사람들, 자유통일포럼, 선민네트워크,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한국독인연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시대정신청년위원회, 스토리k, 자생초, 기독교유권자연맹, 종족예방시민연대, 생명살림운동본부, 대한민국미래연합, 탈북동포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

감신대 이정배 교수의 명예퇴직 철회하라

감리교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이정배교수가 후학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며 몇 주 전부터 학교 내에

전문이 감돌았는데, 신입교수 채용과 관련해 불공평한 처사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오늘은 이정배 교수 명예퇴직 철회

를 요구하는 기도회가 있었다.

문병하 목사에 의하면

1. 오늘 오전 이정배교수 명예퇴직 철회를 위한 기도회가 감신대

아래오마고 광장에서 있었다.

2. 지난 4월 30일 후학들을 위해 길을 터 주기 위해 이정배교수가 명예퇴직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3. 한국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유일한 종교철학학과는 현재 4명의 정교수가 있다.

4. 그런데 지난 학기 이경재교수가 정년퇴직했고 한정선교수는 건강상이유로 휴직인 상황에서 2명의 교수 중 1명에 명예퇴직하고 나면 그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로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

5. 따라서 아직 대체할 교수도 선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이 6년이나 남은 이정배교수의 명예 퇴직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교철학과 총동문회에서는 이정배교수 명예퇴직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2014년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

충청북도가 5월을 맞아 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등으로 집단급식이 증가하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집단설사환자 발생가능성이 커져, 감염병 유행의 조기 차단을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등 감염병 감시활동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시·군 방역담당자와 도 담당자, 질병관리본부가 24시간 업무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평일은

2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게 되며,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재택 또는 사무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
- 집단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시 신속 보고
- 야간 및 휴일 집단환자 발생시

· 의료기관은 보건기관으로 유선통보
· 보건기관은 유선, 온라인 시스템 보고 및 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량 환자 발생상황 등 일일 현황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일 보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충북도에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홍보활동과 함께 도내 방역취약지 2,971개소에 대하여 주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하절기 감염병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본 신문방송 언론부흥사협의회 단체는 기독언론단체로서 한국교회와 기도원 개 교회, 농어촌 선교에 사명을 가진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부흥사로 뜻을 같이 할 것이며, 본 단체는 보수적이며 건전교단에 속한 사역자들로서 초교파 부흥사단체이다. 이 시대의 사명감당을 위해 뜻이 있는 사명자라면 본 단체는 크게 환영하며 회원으로 맞이합니다.



총재
이호은 목사
(화성총현교회)



대표회장
정기남 목사
신문방송 대표이사



부총재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부총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총재
정대성 목사
(삼성교회)



부총재
곽동훈 목사
(행복의집원정)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등불교회)



강사단장
박수영 목사
(행복선교회)



상임회장
홍형표 목사
(한영총 사무총장)



상임회장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의교회)



부이사장
이규필 목사
(안무법 부총재)



부사장
전예희 목사
(안무법 실무총재)



상임이사
서동기 목사
(안무법 지문)



상임이사
하종우 목사
(안무법 지문)



상임이사
김창룡 목사
(안무법 실무총재)



상임이사
박한국 목사
(안무법 지문)



자문
박양우 목사
(중부권지사장)



자문
이범성 목사
(한기법대표회장)



자문
허식 목사
(한영총 직전 총회장)



자문
이준복 목사
(안무법 지문)



자문
서영우 목사
(퓨리탄대학총장)



공동회장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원정)



공동회장
이기학 목사
(포항지사장)



공동회장
전진성 목사



공동회장
강신숙 목사
(강신숙예술신학원)



공동회장
우슬초 목사
(주성강직장예교회)



공동회장
임해숙 목사
(서울광운영요교회)



공동회장
김부경 목사



회계
유윤주 목사
(조에 교장선교회)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 <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ntv@hanmail.net 웹하드: I.D-cpjk, P.W-km1122

대한민국 ‘특별시민’ 오정현 목사 폭로 광고

사랑의교회, “거짓과 왜곡 음해 선동성 광고로 교회를 흔들어”

“대한민국의 ‘특별시민’ 오정현 목사를 고발합니다.” 오정현 목사가 인도하는 사조예배당 예배를 거부한 채 강남성전에서 별도의 예배와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교인(일명 사랑의교회 회복을 바라는 성도 일동)들이 일간지에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오 목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오정현 목사의 연봉이 2억6000만원으로 에쿠스 승용차 2대를 사용해 자동차 기름 값으로 한해 4000만원을 쓴다”고 폭로해 서민들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오 목사를 부각시켰다.

“사랑의교회 회복을 바라는 성도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광고성명에서 이들은 또 “오정현 목사는 6년 동안 사랑의교회 찬양대의 수익금인 2억3천만원을 교회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오정현 목사는 지난해 7월 초 검찰에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로 고발당했으나 250일 넘게 검찰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랑의교회가 3000억원이 넘는 호화예배당을 신축하면서 ‘방बा키 캠페인’을 벌였다”면서, “수만 명의 신도들을 건축 현장에 동원해 붉은색 십자기를 땅에 꽂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땅바닥 캠페인을 매주 펼치기도 했다”는 밝혔다. 이어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오정현 목사의 이러한 목화가 성경에서 벗어난 무속 행위라는 우려 속에 직간접적으로 성경에 기초한 건전한 목회를 하도록 기도하며 권고했으나 오정현 목사는 큰 예배당 신축을 강행”했다며, “건축 과정에서 토지 매매 계약 및 은행 대출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정현 목사의 의혹 많은 회계 처리에 대해 사랑의교회 감사 위원들은 2012년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오정현 목사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면서, “이미 제출된 내용에 대한 감사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발견되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오 목사는 이 보고서를 ‘학의적인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동원해 감사보고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감사 위원 전원을 해임하기까지 하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성도들을 쫓아낸 목적으로 장관 개정을 시도하고, 최근 설교에서 ‘부활절(4.20) 이전에 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겠다’고 발표하더니,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소를 제기한 장본인이 오정현 목사로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교회 측은 이 성명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먼저 “최근 주요 일

간지에 잇따라 실린 이탈교인들의 해(害) 교회 광고에 대해 교회는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정체를 명의의로 광고를 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일간지 등에 낸 많은 해교 및 광고 중에서도 가장 내용이 저급하고 공격적”이라 주장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왜곡 음해 선동으로 가득하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틀림없이 검찰수사를 압박하려는 위대한 의도로 들어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광고를 전 국민이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참당해하는 사점에 댄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이탈 교인들은 그동안 일한 음해와 공격으로 교회를 흔들어 왔다”고 주장하고, “담임목사에 대한 온갖 명예훼손은 물론 사조예배당 건축 등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문제를 수시로 거론하며 교회를 괴롭혔고, 담임목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성도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러 왔다”며 “교회는 이런 이탈 교인들의 악행을 참고 몸을 낮추며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했다. 검찰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명이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측은 “이탈 교인들이 무엇이 조금한지 검찰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시 대대적인 신문 광고로 거짓과 왜곡된 주장을 사회에 퍼뜨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랑의교회는 “담임목사에 대한 한층 극렬해진 인신공격을 퍼붓고 교회 건축을 앞두고 건축현장에서 가졌던 기도회조차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 등 말도 안되는 내용들로 교회를 비방 음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목을 끌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회의 많은 대내외 사역 및 봉사활동이 위축되는 등 영향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다. 덧붙여 “이번 광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에 있다”고 밝히고, 광고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탈교인들의 공격에 대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연히 대처해 갈다”고 당부했다.

5월, 어린이(주일) 전국 9개 교회 장기기증 동참

“장기기증의 소중함 아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가정의 달, 우리 가족 모두 생명나눔을 약속합니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택)는 최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전국 9개의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가 드러졌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주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상현교회(담임목사 최기학)는 2, 3, 4부 예배에 박진택 본부장을 초청해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를 드렸다.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를 드리는 상현교회는 특별히 이번 어린이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도록 캠페인을 계획했다.

특히 지난 2월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예장통합교단(총회장 김동업 목사)의 일원인 최기학 목사가 이번 사랑의장기기증 캠페인에 앞장선 것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예장통합교단의 총회장인 김동업 목사가 시무하는 목민

교회에 이어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를 드린 상현교회에서 이 날 214명의 성도들이 사후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

최기학 목사는 “어린이주일을 맞아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 예배당에서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사랑의장기기증은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아름다운 나눔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장기부전 환우를 돕는 정기 후원에도 동참하는 등 최 목사는 술선수범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했고,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을 독려했다. 이에 올해로 3번째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한 상현교회는 지금까지 무려 536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모집하며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같은 날,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푸른마음교회(담임목사 이창기)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사랑의장기기증운동 총북지부의 황성현 국

장을 초청하여 사랑의장기기증서약식을 진행했다. 이 날 11시 예배에 이창기 목사는 ‘어린이와 같이 아아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설교를 통해 장기기증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긴 푸른마음교회의 성도 32명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 이 날, 상현교회, 푸른마음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9개 교회에서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를 드려 하루 동안 무려 461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박진택 본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 성도와 함께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생명나눔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제2회 전국사진전시회 개관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회장 김중욱 목사 이하·대기협)는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주중철전시위원장의 주관으로 전국에서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진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먼저 감사예배가 드려지고 7일간의 전시회가 개관되었다.

이날 총무 권완근 목사의 진행으로 개관예배가 시작되어 이상철 장로의 기도, 회장 김중욱 목사는

사도행전 11:24~26절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삶”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회장 김중욱 목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중에 90%는 부정적인 것이며,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다”고 했다. 하지만 그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마도 10% 미만이고 불과 할 것이며, 그만큼 고백하고 배마를 세상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간혹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이나 부모를 지키며 모시는 일, 또는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미담들이 들리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터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 기독교 사진가협회에서는 이런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중욱 회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조금 더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때로는 미소 짓게 하며 때로는 잔잔한 감동의 파도를 일으키는 작품들을 전시했다면서 이번 전시회 기간을 통해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작전회장 엄영수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장 김중욱 목사의 사회로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제2회 컨테스트 시상식에서 금상 : 축복(황매란), 은상 : 아름다운 사람(조우길), 동상 : 영점(김성희) 등이 수상을 안았으며 부상으로 이웃사랑 섬김의 날(이규곤), 기도(곽완근), 우리는 한가족(엄영수)에게 돌아갔다.

한편 2015년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제3회 컨테스트는 “물방울”을 주제로 정하고 전국에서 많은 회원들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전시될 예정이다.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성명의 약속 : 주의 메시지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지휘할만 있는 나라(고후 3:17)				
예배 안 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복합 (2층)	
찬양 예배	주일	오후 3:00	이전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분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행복샘전인치유센터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목회위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췌어찌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마티스관절 병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매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 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송예배시간안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 새벽 기도회 오전 5:00
-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 중요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현동)
☎ 053-752-8238 010-8537-8291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매월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주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

- ◆ 예장(예)총회 인천노회소속
- ◆ 동불교회 담임
-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 예수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연수원장
-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	사무국장	교무국장(교수)	사무간사
 광영민 목사	 김선우 목사	 김성원 목사	 김영애 사모

교수진				
 박영화 교수	 김장원 교수	 임태우 교수	 고요한 교수	 김성기 교수

■ 광영민 목사 약력

- 동불교회 담임
- 에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 · 부흥사회 대표연수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8대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 지저스타임즈 본사 사무국장
- 예장(예)총회 인천노회소속

http://kiea.onmam.com

중식 및 교재 무료 제공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장소 : 동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주소 :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송의1동 441-45)

문의 : (사무국장)010-3499-2441, (교무국장)010-9610-8508

예능 총회 신학원, 연구원 신학생 수시 모집, 기독교장로회
수업일: 매주 금 · 토요일 오전 10:00부터

남현교회의 큰 부흥은 “양육 새가족 섬김과 전도”



담임목사 이춘복

교회가 대형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한 비결은?

“남현교회가 대형교회로 부흥 성장하고 있는 비결은 담임 이춘복 목사의 엄청난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교인을 사역팀으로 훈련시키고 각자는 달란트대로 사역을 하되 모든 사역은 봉사와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꾸준한 기도와 전도훈련에 있다고 말한다.

이토록 대형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양육 새 가족 섬김이 사역”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김태일 장로는 새 가족 양육위원장으로 본 교회를 섬기고 있다. 김 장로는 어린 시절 사립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지만 한때 주님을 떠나 있던 중 아내 윤효순(현재 권사)과 결혼하여 본 교회 이춘복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후 이 목사님과 심방대원들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봉사를 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에 내려가 전자공장을 운영하던 중 IMF으로 사업이 파산되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성전 구석구석 빠짐없이 공사를 하게 하시고 새벽기도와 차량 운행 등 봉사에 힘쓰게 하셨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고 하셨다.

김태일 장로는 20년간 새 가족사역을 통해 많은 복을 받았다

김태일 장로는 고 육환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큰 도전을 허락하셨고, 그 후 장로가 되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새 가족 양육 바나바 사역”이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2),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김태일 장로...

그는 전도의 비결을 배우면서 영혼사역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성령께서 주셨다며, 또한 2003년 이춘복 목사의 목회비전 중 열린 교회로 개방하면서 이 지역의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헌신해 오면서 새 가족 양육위원장을 맡아 봉사하며 섬기게 되었다고 한다.

김 장로는 또한 이춘복 목사의 열정적인 제자훈련과 한 영혼사랑에 힘입어 확인 1기, 성장 1기로 수료했고, 매년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세워졌으며 훈련된 제자들을 주님은 전도 축제를 통하여 이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헌신하게 하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 매년 성도의 수가 늘어만 갔고, 특히 이춘복 목사님께서 전교인 사역팀을 만들어 달란트대로 사역할 수 있게 하였고, 모든 사역은 봉사전도에 초점을 두고 계셨다.

남현교회는 새 가족 부원들의 순종과 열정적인 사명감에서...

남현교회의 새 가족부에서는 교회를 처음 출석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라 믿고 한 분 한분을 잘 섬기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부교역자와 새 가족 부원들은 순종하며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김태일 장로가 맡은 양육(새가족, 바나바)사역팀은 양육세미나에 참석하여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본 교회에 접목하여 직접현장에서 체험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신 한 영혼이 등록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남현교회 새 신자 정착율은 90%나 된다. 특히 이 목사님이 직접 확인제자를 지도하시면서(35기

까지 1300여 명의 훈련제자로 성장하였으며 확인제자→성장제자→훈련제자 학교로 영적성장을 하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였다.

게다가 교회의 부흥성장에서 섬김이(바나바)사역을 빼놓을 수 없다.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1로 3주간을 새 가족을 돌보며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안내의 역할을 하게 했다. 본 교회는 한 번도 분쟁이 없고, 성도들의 순종과 서로 섬기는 봉사와 제자훈련으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면서 소문이 날만 교회로 평이 높다.

특히 양육 섬김이(바나바) 위원장을 하면서 부원들과 함께 모여 예배 1시간 전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도 준비하며 성령님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김태일 장로, 지금도 매주 등록하는 새 가족들을 보면서 저 영혼들이 잘 정착하여 교회의 기둥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며 기도하고 있다.

김 장로는 부인 윤효순 권사와 큰 20년간 새 가족사역을 맡아오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며 다짐해 본다.

1년에 500명씩 등록하는 새 가족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못나 감을 가지고 있다. 김태일 장로는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 또한 남현교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로 계속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특별히 양육 새 가족 섬김이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한 영혼 사랑축제를 열어 많은 태신자들이 정착하고 그 영혼들을 섬례하는 마음으로



김태일 장로

김 집사의 전도의 비결은 이춘복 목사의 설교를 통해 타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엄청난 변화를 받아, 도저히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집 밖으로 뛰쳐나가 골목과 대로 시장과 백화점, 전철과 택시를 이용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 전도에 불이 붙은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진절을 베풀며 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여 예수님을 자랑했다. 때로는 사탕과 피로회복제 음료수 등을 가방에 준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면 먼저 기사님 수고 감사합니다. 때마침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느냐며 인사를 건네면서 준비해 간 음료수를 대접하고 자신이 출석하는 남현교회가 개봉동에 있다며 자랑하고 전도를 시작한다고 했다.

남현교회는 전도왕 전도특공대 김선희 집사가 있다.

2012~2013, 두 차례에 걸쳐 전도왕이 된 김선희 집사는 지난 4월 6일 주일3부 예배 후 전도대상을 수상했다. 김선희 집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다. 아울러 항상 곁에서 적극협력을 다해준 남편과 자녀들, 남매와 친정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전도대상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전도왕으로 대상을 얻은 김선희 집사는 타 교회를 섬기던 중 개봉동으로 이사를 와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 남현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양육 새 가족 섬김이 사역” 훈련을 받고 영혼사랑에 애착심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구로지역 일대를 걸어서 때로는 택시를 타고 기사를 전도하는 등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전도 특공대가 되었다고 한다.



김선희 집사

김 집사의 전도의 비결은 이춘복 목사의 설교를 통해 타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엄청난 변화를 받아, 도저히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집 밖으로 뛰쳐나가 골목과 대로 시장과 백화점, 전철과 택시를 이용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 전도에 불이 붙은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진절을 베풀며 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여 예수님을 자랑했다. 때로는 사탕과 피로회복제 음료수 등을 가방에 준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면 먼저 기사님 수고 감사합니다. 때마침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느냐며 인사를 건네면서 준비해 간 음료수를 대접하고 자신이 출석하는 남현교회가 개봉동에 있다며 자랑하고 전도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고 그 결과 2014년 4월 6일 전도왕을 수상했다. 그는 또 전도를 하는 만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새벽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항상 언행이 전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남현교회는 현재 김태일 장로, 김선희 집사와 같은 봉사자들과 전도 특공대원들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와 전화를 넘겨, 차후 연락으

로 권유한다. 또한 등록자를 환영한다. 예배 후 새가족부 요원들의 인도로 “새가족부실”로 입장하며, 미리 준비한 교회소개영상을 보는 중, 음료를 대접하고, 담임목사님의 인사와 소개가 있는 후 기도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게다가 해당교구 목사님, 새가족부원들의 상담과 심방날짜를 잡는다. 준비한 교회달력과 선물을 드린다.

교회성장의 비결은 “새 가족 등록 메뉴얼”이다.

예배를 위한 담당자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사역하고 있다. 1.담당자별 역할에서 교역자는 새 가족을 파악하여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도우며, 담당자, 안내자, 새 가족부원, 섬김이들이 정해진 위치에서 감당하는 조를 하는 역할을 한다. 2.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등록을 이끌어내고, 등록 마스터와 같은 역할이다. 등록자가 정보꽃이에서 주보를 뽑아오지 않는 경우 주보를 뺄 것을 권유한다.

3. 예배 팀은 처음 보는 새 가족이 분당 안으로 입장할시 주보를 주고, 새가족 부원에게 싸인을 준다. 분당 출입구에 위치하여 처음 온 새가족을 안내하여, 정해진 위치에 함께 앉는다. 4. 양육팀은 등록을 권유하여, 등록하면 카드를 등록마스터에게 전달한다. 초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함께 예배드리다가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찬송시 등록을 권유하고 절차를 밟는다. 5. 섬김이 팀은 1.배경받은 새가족을 3주동안 섬긴다. 2. 분당 뒤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새가족부원이 부족할시 투입해 새가족부원과 동일한 역할을 감당한다.

주일 새 가족 등록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새가족 등록은 예배 담당자는 각 예배 시 등록자를 수집하여 담임목사님께 올리면 말씀 후 환영(꽃 전달)하고, 새가족부실로 인도한다. 관유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미루거나, 마찰로 인해 맘이 상할 경우 재방문을 여지를 잘 설명하고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 차후 연락으

로 권유한다.

또한 등록자를 환영한다. 예배 후 새가족부 요원들의 인도로 “새가족부실”로 입장하며, 미리 준비한 교회소개영상을 보는 중, 음료를 대접하고, 담임목사님의 인사와 소개가 있는 후 기도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게다가 해당교구 목사님, 새가족부원들의 상담과 심방날짜를 잡는다. 준비한 교회달력과 선물을 드린다.

“식사 교제와 섬김이 사역으로 사랑”을 나누게 된다.

새가족부요원들의 인도로 지하 1층 카페로 이동하여 식사교제를 하며, 식사와 함께 섬김이가 자리를 함께하여 식사교제와 자연스럽게 3주과정의 섬김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심방과 섬김이 활동”으로 새가족을 인도한다.

등록카드를 접수받은 교구목회자는 1~2주 안으로 새가족을 심방하고, 목장과 남녀전도회에 소속시킨다.(심방시 섬김이 대동). 섬김이 교제의 메뉴얼 대로 섬김이가 3주 과정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확신제자화교로 인도한다.

한 영혼 사랑축제로 목장별 예비신자 작정이 진행되고 있는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는 “앞서가는 교회”로 1.구원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2.훈련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3.문화사역에 앞서가는 교회를 2014년 도 표어로 뜨겁게 전도폭발로 성장하고 있는 남현교회이다.

현재 남현교회는 장년 2000명 청년부 200명 고등부 100명 중등부 100명 초등부 200명 유치부 100명 영아부 100명이 출석중이며, 지교회 9곳(남현교회, 인천남현교회, 새누리남현교회)가 있다. 또한 90여 교회를 돕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김정우,박은원), 필리핀(김상식,이성진)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원하고 있다.

www.inamhyun.org

“2014년 들어” “앞서가는 교회”

구원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 훈련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 문화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구로구민과 함께하는 남현아름문화선교단
2014년 봄 정기공연

한영혼 가족사랑 뮤지컬

“발칙한 흥부전”

●기간 : 2014.5.29.(목)~31(토)
P.M 7:30분 (무료관람)
●장소 : 남현교회(3층 대예배홀, 2000석 완비)

비전 2020

1. 열정적 전도
2. 전인적 양육
3. 사랑의 공동체
4. 감격의 예배
5. 기쁨의 봉사
6. 즐거운 교제
7. 능력의 선교

100교회보조/전도선교사107명/지교회10교회/10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 부교역자

- 부목사 : 김성집, 최성일, 이정훈, 최영만, 고두빈, 서경훈, 윤영배
- 찬양목사 : 이인섭
- 전도사 : 손원경, 정의환, 강요한
- 교육전도사 : 서은영, 김평화, 임상규
- 파송선교사 : 김상식, 이성진(필리핀) 김진우, 박은원(인도네시아)
- 방송간사 : 유호준

■ 시무장로 및 협동장로

- 시무장로 : 강성재, 이선훈, 임승수, 정현용, 김대웅, 강권학, 전영수, 이환근, 정인호, 박석환, 강성학, 김상근, 김문하, 나찬영, 지운섭
- 은퇴장로 : 배재호, 정현철, 황이만, 정형규

■ 협동장로

- 김태일, 윤방식, 엄익범, 심상길, 김흥기, 정강희, 김효구, 조성덕

■ 찬양지휘자 및 반주자

- 찬양지휘 : 김성강, 윤석민, 류현주, 배영해
- 오케스트라단장 : 차추남
- 피아노 : 서해원, 김찬미, 김서진, 정유나
- 오르간 : 이지영
- 신디 : 장은영, 김소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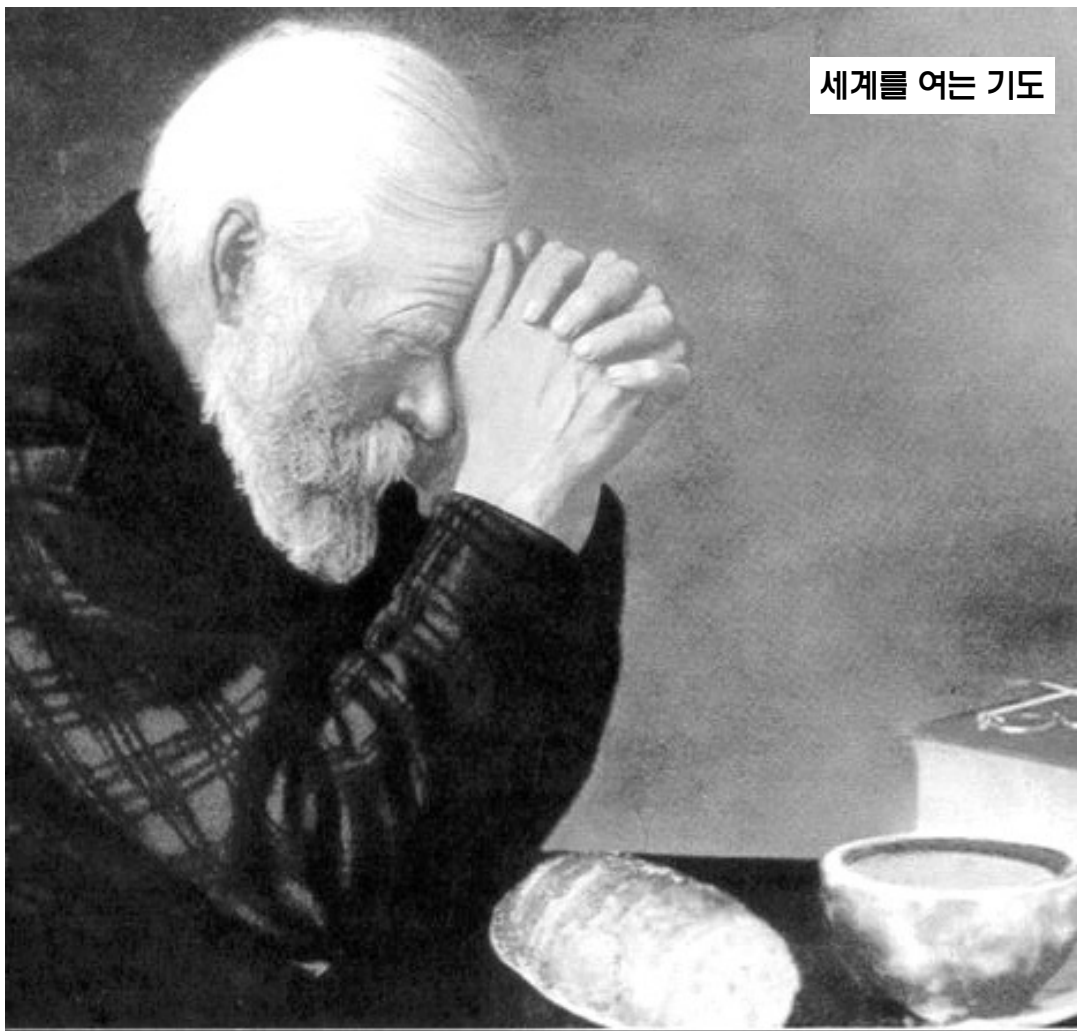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www.inamhyun.org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주일 오전 7시30분	대예배홀(3층)
2부	주일 오전 9시30분	대예배홀(3층)	
3부	주일 오전 11시30분	대예배홀(3층)	
주일 청년예배(4부)	1청년부	주일 오후 2시30분	비전홀(1층)
	2청년부	주일 오후 2시30분	1세미나실(2층)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3시	대예배홀(3층)	
수요 예배	오후 7시(화)7시30분	대예배홀(3층)	
수요 심야 기도회	오후 8시(화)8시30분	대예배홀(3층)	
새벽 기도회	1부	매일 오전 6시	비전홀(1층)
	2부	매일 오전 6시	비전홀(1층)



바로 살아 보세!!

세월호의 전복사고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자녀들의 희생이 무의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위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직자들과 여야를 넘어서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전통을 세워 나가는 데에 힘을 합하여야 한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아온 삶의 결과이다. 세월호 사건은 이기주의와 생명경시, 적당주의와 부패한 관행들이 합하여져 일어난 사건이다. 야당의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치고 있지만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이다.

대통령이 10번 20번 사과한다고 하여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이제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나 정치행태나 관행에서 벗

어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 사건에 관계되는 이단종파 구원파와 그 대표 격인 유병언에 대하여 시간마다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다. 이번에는말로 그런 인사, 그런 세력들이 발본색원 되어 우리 사회에서 뿌리째 뽑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병언 일파의 규탄에 쫓겨 우리 사회의 그릇된 가치관이나 공직자들의 무책임이나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회개와 개선 또한 고려져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 종교인들이 대오각성 하여야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그 근본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일이 종교인들이 하여야 할 일이다. 1960년대와 70년대 국민들의 다수가 끼니 걱정을 하며 지내던 시절에 “잘 살아 보세”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나마 잘 살게 되었다. 잘 살게는 되었지만 문제가 생겼다. ‘잘’ 사느라고 ‘바로’ 사는 길

을 잊어버린 것이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잘 살아 보세”를 말하던 때에 교회는 “바로 살아 보세”를 실천하였어야 한다.

잘 살게는 되었지만 바로 사는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패하고 부정하게 되었고, 자신만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들은 죽든 말든 상관치 않게 되었다. 그래서 어린 생명들 300여명을 핏개치른 자기만 살아나오는 이상한 어른들이 된 것이다.

그 귀중한 300명의 아들딸들의 죽음이 그나마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온 나라가 “바로 사는 일”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희생당한 아들딸들의 분향소에 모여 드는 백성들을 보노라면 그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비를 맞으면서도 두 시간 넘게 줄을 기다려 꽃을 바치는 이들의 모습이, 그 정성이, 그 눈물이 아직 희망이 있음을 일러 준다.

처녀만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축전 글 쓸 수 있어

재미 탈북민 최한나 집사의 간증
북한 실상 털어 놓아

서울 시내를 구경하던 재미 탈북민 최한나(50·미국 은혜교회 집사·사진)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난생처음 와본 서울에 높은 빌딩이 많고 잘 살았던 것이다.

“북한학교에선 서울에 거지가 득실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이제 그런 거짓말을 믿지 않아요. 남한이 잘사는 것을 입소문 등으로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남아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6일 만난 그는 자신을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 인민군창건일 등 명절 때마다 ‘축전 글’(축하편지)을 쓴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볼펜으로 쓴 그의 편지는 그대로 평양에 보내졌다.

“글씨를 예쁘게 쓴다는 이유로 축전 글을 쓰게 됐습니다. 주민대표로 축전 글을 쓰러 가면 하루 8시간씩 보름간 그 일만 매달려야 했지요.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고 내용도 당 간부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고치면서 정성을 다해 써야했으니까요. 11년 동안 계속된 그 일은 약혼을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당에서 ‘처녀만이 김일성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며 그만두라고 지시하더군요.” 그는 이제 축전 글 대신, 성경을 필사한다. 한 장 한 장 써내려 가다보니 성경을 모두 필사했다.

“잠언 시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하나님 말씀을 쓰고 읽을 때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1년 전엔 신앙 좋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기도응답을 받았습니

다. 저만큼 은혜 받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어떨 땐 ‘하나님께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호호).”

그는 북에서 양복점 기술자였다. 샷바느질로 생계를 잇던 어머니에게 배운 솜씨다. 2006년 장사밀전을 마련하려고 탈북, 중국에 갔으나 돈을 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자유의 소중함을 보고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탈북자 8명과 함께 중국 베이징 유엔난민기구에 난민을 신청했고 체코를 거쳐 2008년 미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님이 보살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손잡고 기도하는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진한 감동이 오더군요. 그리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북한정권에 속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전 글을 쓰며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찬양했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기도 열심히 하는 ‘한나’로 개명했고요. 미국에서는 영어를 잘 못하고 취업이 안돼 걱정이 앞섰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금식기도를 하고 성가대에서 감사 찬송을 부르니 하나님 이 길을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는 현재 미국의 한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가 재단한 옷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미국전역에 공급된다.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그는 미주자유북한연합회 부회장 및 서부지역 회장과 (세그레이

스사랑재단 미주 서부지역 여성회장 등도 맡고 있다. 모두 북한주민과 탈북자를 돕기 위한 직책이다. 국내 방송출연 차 방한 중인 최 집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공립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는 잠언 28장 27절을 교훈삼아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을 돕는 통일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제42회 어버이날 따뜻한 정나누기 행사 열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료효친 사상을 계승발전하고 효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80명을 모시고 따뜻한 정나누기 행사를 8일 오전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강원도 관광지 소개 동영상 시청, 효행자에 대한 포상과 오찬, 그리고 효나들이(제이드가든)가 이어졌다.

효행자에 대한 표창은 훈장,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10명과 도지사 표창 24명이 수상자이지만 대표하여 6명이 수상하였다.

당초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탑승자의 희생이 너무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의 아픔 마음을 조금이나마 같이하기 위하여 행사를 간소화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강원/곽동훈 기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사랑 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2014년도 목표 : “어두움에 빛이 비치라”

- 선교사 : 김경자
- 전도사 : 장성철,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6시
새벽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 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춷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삼
성
교
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 성 교 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지 66

무료급식 나눔으로 온정 베푸는 김태경 목사



이 외에도 김태경牧사는 “땅끝 섬김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 단체는 섬김과 나눔, 봉사를 취지로 105명이 뜻을 같이하여 땅끝섬김회가 조직이 되어 무료급식과 노숙자 재활운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노회와 총회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지난 5월 7일(수) 오전 11시부터 성서교회에서 100여명의 독고노인들과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다과를 대접하는 자리에 인천기독교연합회 총회장 신덕수 목사님과 임원들이 동참하여 손수 식판을 나르는 봉사를 했다.

이날 인기총 신덕수 총회장은 인천지역은 최초로 복음의 발상지이며 아펜젤러 언더우드선교사가 첫발을 디딘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출발지로서 아펜젤러 언더우드선교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인천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최초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김태경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알

는 것을 처음 알았고, 감동적이었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노숙자들과 독고노인들을 섬기는 일을 볼 때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미약하지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또한 박무평 목사님은 섬김과 나눔에 언제나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김태경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적극 동참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 목회의 마인드가 고마운 분이다. 적으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 면 한다. 이러한 각진 규정에 의한 목회상을 갖고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데는 굉장히 더디겠다 생각해

는 항상 나는 바울 선배님을 생각하는데 고전 9:22절을 항상 묵상



졌 다

는 마인

드를 가지고 이

날 동참해 주었다고 했다. 또한 서상운 목사님은 선배들이 하는 일

다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김목사는 무료급식 외에도 매년 초 겨울에는 소외된 이웃 독고노인들을 위하여 김장을 하여 용기에 담아서 전달하는 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김태경 목사님은 이날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을 근본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등 보

호대상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고 치유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구호활동을 실천해 갈 것을 다짐했다. 게다가 더불어 가는 온정의 손길이 계속해서 펼쳐나간다면 조금이나마 어두운 곳이 빛으로 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인천 중구지역 소외되고 외로운 독고노인들과 노숙자를 가족처럼 돌보며 매주 수요일, 금요일, 두 차례 거쳐 따뜻한 식사와 음료, 다과 등으로 6년 동안 섬기고 있는 성서교회 김태경(76)목사, 그는 후덕한 성품과 “천사의 미소”로 명성이 높다. 인천이 고향인 김태경 목사, 이정목 사모는 1남 2녀 삼남매가 있으며, 모두가 결혼을 했다.

1978년도에 선배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과 꿈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5일 급식을 작성하고 강남급식기독교원(김성광 목사)에 들어가 급식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전도사의 강권적인 권유로 신학(강남신학)을 하게 되었고, 현재 예상(합동성서)총회에서 1990년도에 안수를 받아 목회를 시작하여 인천노회 노회장으로 제직 중에 있다.

대방동에서 1994년도에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인천 성서교

회가 다섯 번째 개척이다. 이곳은 노숙자들을 비롯 소외된 독고노인들이 많은 것을 보고 2008년 5월 28일부터 무료급식과 노숙자들의 재활을 하게 되었고, 이 일을 위하여 친구들을 비롯해 성서교회의 제정으로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온정의 손길을 펼쳐나간다고 한다.



고 있었지만 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후배들을 잘 다독겨려 주시고 아껴주시는 목사이다. 인천 지역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

따뜻한 식사로 독고노인들을 가족처럼 섬기는 성서교회

하고 있지만 약한자들에게는 항상 약한 모습으로, 강한자들에게는 항상 강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에 적응해 가면 행동하는 것은 내 목적이지만 한 두 명이라도 복음의 참여시키는 것이요 구원시키기 위한 방법이 내 신앙의 어떠한 모토이다. 그래서 이렇게 김목사님의 일하시는데 누구나 세상적으로는 한참 잘나가실 때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주먹이라고 하면 애들도 울다가 그칠 정도로 명성을 가지셨던 분이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76세가 넘도록 굴하지 아니하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된다고 했다.

또한 인기총 총회장 신덕수 목사님은 3500교회의 대표인데 늘 소문으로 듣다가 무료급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기총에 널리 알려야

에 공감대가 있어서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기총 협동총무 서상운 목사님은 김태경 목사님을 집사 때 만났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는 강원도 화천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다가 교회에서 집사 때부터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며, 그무렵 성서보수총회 성서교회가 도화동에 있었고 간증집회를 오게 되었다. 사실 예수를 믿기 전, 김진갑씨가 당시 인천 보안과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김태경 목사님의 친구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한다.

인천중구지역에서 천사의 미소로 명성이 높은 김태경 목사의 목회의 비전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목회관”이라면서 알곡교인을 만드는데 있어 성경공부와 기도로써 영성훈련으로 사역에 최선을

피종진 목사 초청 5월 국내·외 부흥성회 일정

1(목) 저녁	오산리교회(성서) 김성기 목사(원정) 국해현 목사 ☎(031)947-0091 주회 (사)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표)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진요한 목사
6(화)~ 8(목)	한국천도교회(원정) 정만철 목사 ☎ 010-3224-2345
8(목) 저녁	서울 소망교회(연인애) 목사 ☎ 010-2711-7777
제183차 해외성회(183th Overseas Assembly)	
12(월)~15(목)	미국(U.S.A) 뉴욕 대안교회(김 전 목사) ☎(914)840-4153 주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총회
16(금)~18(주)	미국(U.S.A) 뉴욕연합성회(준비위원장 김태현 목사) ☎(213)700-5759
19(월) 오전	미국(U.S.A) 뉴욕장로교신학대학(학장 김용익 박사) ☎(718)310-7062
20(화) 저녁	캐나다(CANADA) 캘거리 목회자 시모세나 주회: 캐나다 캘거리 열두성교회(김종식 목사) ☎(403)771-1441 주회: 캐나다 캘거리기독교연합회(회장 김홍식 목사)
21(수) 저녁	캐나다(CANADA) 캘거리중앙로교회(고철주 목사) ☎(403)992-1004
22(목) 저녁	캐나다(CANADA) 캘거리중앙로교회(이재현 목사) ☎(403)263-0330
23(금) 저녁	캐나다(CANADA) 캘거리순복음중앙교회(김원호 목사) ☎(403)249-5056
25(주) 오전	캐나다(CANADA) 캘거리제일장로교회(김진우 목사) ☎(404)273-8665
25(주) 오후	캐나다(CANADA) 캘거리영광교회(송영배 목사) ☎(403)969-3659
26(월)~28(수)	미국(U.S.A) 뉴욕연합성회(준비위원장 김태현 목사) ☎(213)700-5759



전략전도왕
김재옥 목사
소망교회 담임
충신대신대원 졸업
보이는전도훈련원장



현장전도왕
유승열 목사
현장전도법 코칭
충신대신대원 졸업
현장전도훈련원 대표



CEO전도왕
조광화 목사
오아시스교회 담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CEO전도연구원장

힐링전도왕 이윤숙 목사는
2번 교통사고로 죽을지경 힐링지압기와
기도로 건강을 회복, 전도에 활용하여
성경한 노후공공, 거북교회 담임
(주)사나래소프트 사록 힐링전도연구소장



부천 **5.19일(월) 지구촌선교회** 담임/이석종 목사
부천사구 송42동 610-12 부천남부역
20번 남중하차성주초교류, 010-9060-9190

서울 **5.20일(화) 보배교회** 담임/김학목 목사
서울 양천구 목동 781-7 목동역 3번출구
강서교로, 02)2646-9983 *유승열 목사

안산 **5.22일(목) 아가페교회** 담임/이성선 목사
안산 상록구 일동 631 상록수역 1번출구, 안산대방향
일동주민센터하차, 제로마트옆, 031)419-8291

김포 **5.23일(금) 사우중앙교회** 담임/안준갑 목사
경기 김포시 사우동 239-1 *031)982-2052
사우동주민센터 뒤, 유승열 목사.

진해 **5.26일(월) 진해성결교회** 담임/이병곤 목사
경남 진해시 여좌동 105-10
여좌우체국 옆, 055)545-3553

광주 **5.27일(화) 행복한교회** 담임/김영광 목사
광주 광산구 월곡동 61-4
월곡동 롯데리아가면, 010-3358-7455

충주 **5.29일(목) 믿음교회** 담임/이수정 목사
충북 충주시 용산동 299
지국다리-공교방향, 043)853-3927

- 대상 : 담임목사, 사모, 부교역자, 전도팀, 평신도사역자, 전도 원하는 모든 성도
- 회비 : 무료(문자 사전등록자, 지역, 교회, 성명) 당일/만원
- 접수 : 010-7900-4475(지역, 교회, 성명) 교재5,000원 점심, 일부 제공
- 주최 : 개척성장연구원
- 한 번의 간증집회로 전도의동기부여와 전환점을 만듭시다. (노회,시할 목사님들의 모임은 자비량으로 섬깁니다)

* 전도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전파주시면
본 원의 **찾아가는 무료세미나**로
현장에서 탁월한 전략으로
직접 전도하며 섬깁니다.